

인간 + 인간





서초구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는 《2023 서리풀 청년아트마켓》전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8월, 만 39세 이하 및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전시 참여 작가를 대상으로 아트마켓 작품을 공모해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 전시된 작품은 50만원 이하의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진구
데뷔 46주년을 맞은 음유시인 최백호가 삶의 여정이 묻어나는 음색으로 관객과 호흡한다. 9월 9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음유시인 최백호 콘서트>에서 데뷔 이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온 아티스트로서 그만의 음악을 오히려 보여줄 예정이다. 최백호의 감성 짙은 노래로 만추의 계절 9월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 자치구 소식

중랑구
중랑문화재단은 망우리공원(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국민화가 이중섭을 기리고 어린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9월 16일 중랑캠핑숲 잔디광장에서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5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지역예술가 중랑아티스트의 특별 공연도 만날 수 있다.



노원구
올해 바리톤 김태한의 우승으로 더욱 화제를 모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023년 성악 부문 1·2·3위 수상자가 출연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가 9월 19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22세 나이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며 당당하게 트로피를 거머쥔 그는 이번 무대에서 베르디 <맥베스>의 아리아를 들려줄 예정이다.



금천구
가을은 '책 읽는 도시 금천'의 계절! 책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이 9월 16일 금나래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인기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구청장이 직접 읽어주는 '빅북', 독수수비대를 비롯해 체험존·힐링존·공연존과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도봉구
9월 23일 오후 2시, 도봉구청 옆 중랑천에서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생태와 친환경을 주제로 <노을장>을 연다. 마켓, 관객 참여형 공연, 자연 친화 요가, 자연 활용 미션 게임 등 중랑천 생태에 관한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행사에 관심 있거나 참여를 원한다면 도봉문화재단 누리집을 주목하자.

종로구
종로구민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9월부터 11월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와룡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고 싶은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생태 감수성을 높여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시간. 관련 내용은 종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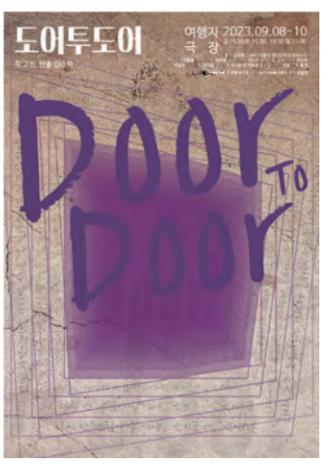


상상만발극장 <미래의 동물>
누군가의 일상에 여러 이질적인 세계가 겹쳐 들어온다. 인물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개연성의 원리를 비집고 몇 겹의 세계를 관통하며 자유롭게 오간다. 한 인물이 한 세계에서의 경험을 뛰어넘는 이질성의 세계를 오가며 관계를 맺을수록, 각각의 세계에 인간과 동물·사물 혹은 이외의 것들을 넘나들며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스며들게 된다. 작품은 우리의 세계에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함께 있는 여러 존재, 시간, 세계의 감각을 관객과 함께 상상한다. 2020년 김상열연극상, 2018년 윤영선연극상을 받은 박해성 연출의 작품이다.
9월 8일부터 17일까지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70.4412.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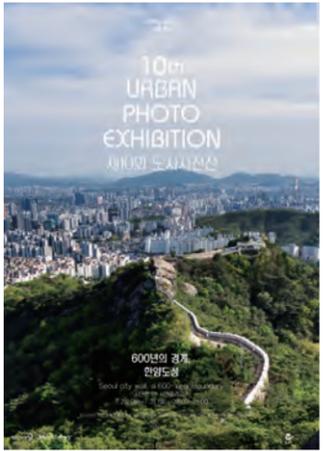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 10주년 기념 콘서트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와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출신 베테랑 비트박스 H-has, 장르를 가리지 않는 색소포니스트 한승민, 베이스리스트 구교진, 재즈피아니스트 오은혜가 함께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전통음악을 매개로 악기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반응하고 호흡하는 즉흥적인 교감을 통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보이는 4인놀이의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아우른다.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 백암아트홀 | 070.8959.9569

연극 <더 웨일>
2023 퀴드 초이스 <더 웨일>이 9월 22일부터 베일을 벗고 관객과 만난다. 사무엘 D. 힌터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더 웨일>은 동명의 영화(대런 애러노프스키 감독)로도 제작돼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2개 부문(남우주연상·본장상)에서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과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받은 연출가 신유청이 나서 그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초연을 선보인다. 밀도 높은 연기를 펼치며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백석광(찰리 역)·전성민(리즈 역)·정수영(메리 역)·탁민지(엘리 역) 등 배우가 캐스팅됐다. 특히 영화에서 브랜던 프레이저가 연기해 화제를 모은 초고도 비만자 찰리 역을 배우 백석광이 특수분장으로 소화한다.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 대학로극장 퀴드 1577.0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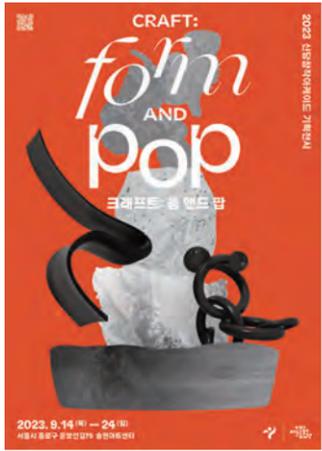
극단Y <오르막길의 평화맨션>
유진과 하나.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진 연인이다. 이사를 계기로 갑자기 연락한 유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을 찾아온 하나는 함께 집을 옮기고 풀며 이야기를 나눈다.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 때문에 과거의 해묵은 감정이 되살아나지만, 대화를 통해 사랑하고 미워했던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제서야, 진짜로 헤어진다. 그렇게 레즈비언 유진과 바이섹슈얼 하나는 서로 다른 차별과 혐오를 함께 겪고 이별 후에서야 비로소 연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전서아 작·강윤지 연출의 작품으로, 자막 해설과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9월 8일부터 17일까지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010.2069.7202



극단 바람처럼 <도어투도어>
신, 구원, 죽음 등 세계와 인간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을 이야기로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극단 바람처럼에서 자체 제작한 연극을 선보인다. 어둡고 허름한 주택가에서 한 학생과 참쌀떡 장수가 우연히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무력하게 느껴지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할 어른아이의 내면 이야기가 기묘한 퍼즐처럼 이어진다. 고진이 희곡을 쓰고, 김승덕이 연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 여행자극장 010.2208.1552



《제10회 도시사진전: 600년의 경계, 한양도성》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서울성곽은 600여 년간 서울을 지킨 방어막이자 최후의 경계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한양도성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의 서울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도시사진전 프로젝트에 함께한 시민 사진작가 35인의 눈으로 담은 한양도성의 순간을 만나보자.
9월 6일까지 | 코엑스 지하2층 라이브 플라자 02.739.5814



《Craft: Form and Pop》 & 《Dining and More_감각의 테이블》
 신당창작아카데미 14기 입주작가 35명의 기획 전시《Craft: Form and Pop》과 신당창작아카데미 x 신세계&B 공예상품개발 결과 전시《Dining and More_감각의 테이블》이 함께 열린다. 2023년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의 신작, 공모와 멘토링을 거쳐 개발된 테이블웨어 10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 송원아트센터 02.2232.8833

전시



료 코이즈미 개인전《BREATH》
 료 코이즈미Ryo Koizumi의 개인전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다. 그의 대표작 'Halo', 'Locus', 'enso'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호흡을 기점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와 회화 사이의 연결을 탐구한다. 작품의 모든 시리즈에서는 공통으로 원형의 패턴이 반복되는 행위가 이뤄진다. 시작도 끝도 없는 원 안에서 반복되는 이 행위는 시간을 초월해 현재의 캔버스를 마주하며 보는 이에게 정동(情動)을 안긴다. 또한 물감으로 표현하는 반복과 규칙의 형상은 바라보기만 해도 보는 이에게 경외감을 준다.
9월 2일부터 27일까지 SH GALLERY SEOUL | 02.6205.1610

《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김용익》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선보이는 소장자료 기획전. 개념주의 미술과 모더니즘 미술, 나아가 공공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작업은 해운 김용익의 아카이브에 주목한다. '라스트 제너레이션에게[To the Last Generation]'라는 제목이 은유하는 작가의 삶과 작업, 소외된 존재들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만나볼 기회다.
11월 19일까지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02.2124.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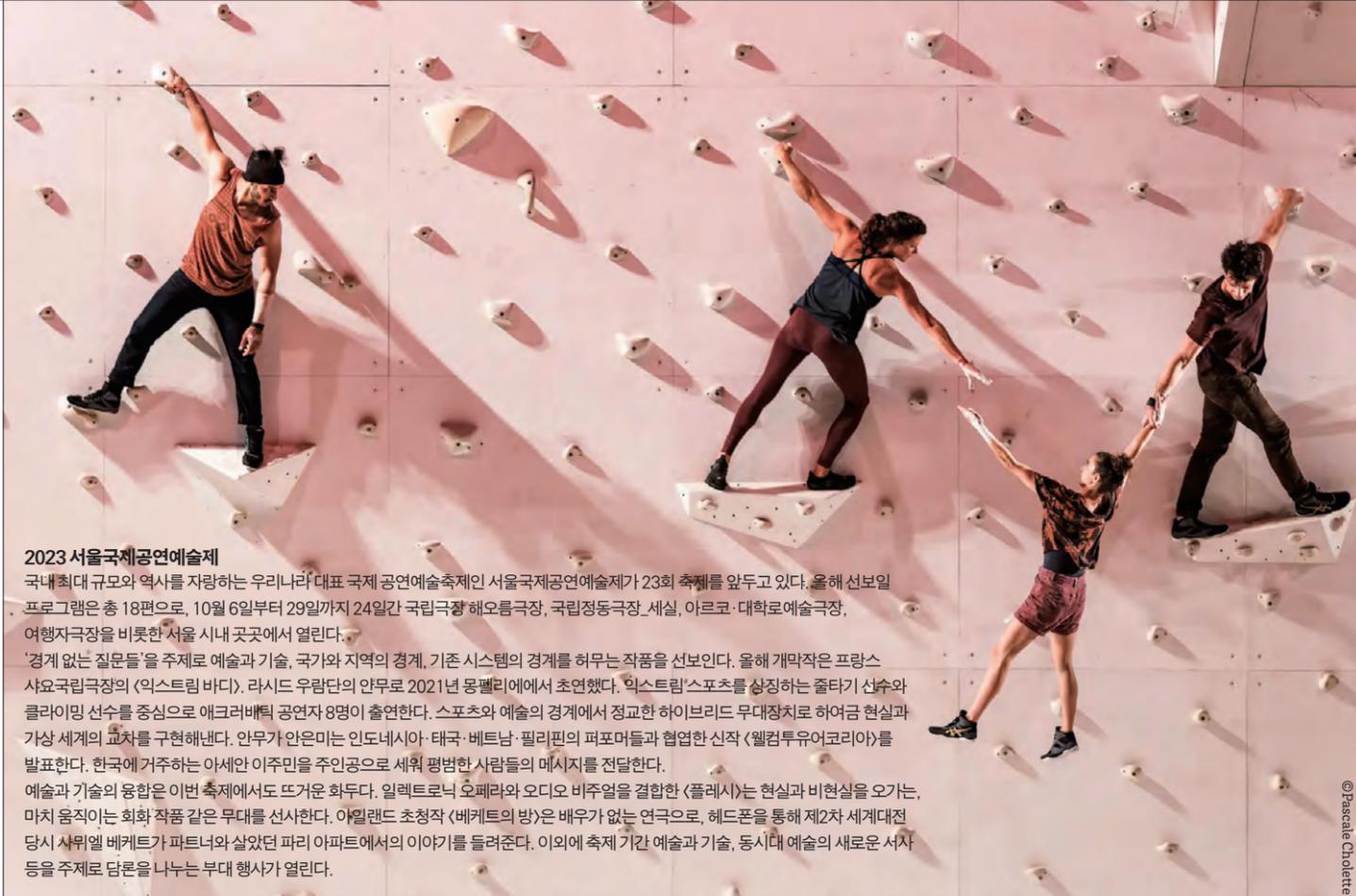


《낭만적 반사》
 감상적 태도 혹은 감미로운 정서를 의미하는 '낭만'이라는 단어는 절대적 미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와 이성의 합리성을 강조한 계몽주의에 반발하며 등장한 19세기 낭만주의에서 비롯했다고 알려진다. '낭만적 반사'라고 이름 붙인 김홍식·정직성·홍수연·황란 네 명 작가의 그림전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유미적인 낭만의 인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화려한 반짝임 이면을 들여다보면, 낭만주의가 추구한 유기체적 세상에 대한 갈구가 느껴진다. 오랜 기간 갤러리와 동행한 국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깊게 음미할 기회다.
10월 12일까지 | 갤러리시몬 | 02.720.3031



Installation view of Romantic Reflexes, Gallery Simon, 2023

축제/행사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 최대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공연예술축제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23회 축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선보일 프로그램은 총 18편으로,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국립정동극장, 세실,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여행자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경계 없는 질문들'을 주제로 예술과 기술, 국가와 지역의 경계,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개막작은 프랑스 샤요극립극장의 《익스트림 바디》. 라시드 우람단의 안무로 2021년 몽펠리에에서 초연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상징하는 줄타기 선수와 클라이밍 선수를 중심으로 액트러벤틱 공연자 8명이 출연한다. 스포츠와 예술의 경계에서 정교한 하이브리드 무대장치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교차를 구현해낸다. 안무가 안은미는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필리핀의 퍼포머들과 협업한 신작 《웰컴투유어코리아》를 발표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이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워 평범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이번 축제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일렉트로닉 오페라와 오디오 비주얼을 결합한 《플레시》는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마치 움직이는 회화 작품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아일랜드 초청작 《베케트의 방》은 배우가 없는 연극으로, 헤드폰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무엘 베케트가 파트너와 살았던 파리 아파트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외에 축제 기간 예술과 기술,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서사 등을 주제로 담론을 나누는 부대 행사가 열린다.



제5회 서울문화예술포럼
 9월 열리는 서울문화예술포럼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문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지 마인드스페이스 대표가 발제를 맡으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12일 오후 3시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02.3290.7060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슈를 선정해 서울을 무대 삼아 세계 도시의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올해 4회째를 맞아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땅과 물과 바람이 관통하며, 환경·생태 조건과 맥락을 다루는 참된 건축을 의미하는 '땅의 도시'라는 개념을 통해 옛 서울(한양)에서 출발해 100년간 개발로 성장한 도시, 그리고 100년 후 서울을 상상한다. 열린송현 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제전과 게스트시티전, 다양한 현장 프로젝트가 열린다. 올해 총감독은 건축가 조병수가 맡았다.



Editor's Pick
KNO가 선정한 특별한 작품

왕자, 호동 Prince Hodong | 브람스 Brahms... | 레드 슈즈 Red Shoes | 빨간 바지 Red Pants

Popular VOD
국내 초연작부터 스테디셀러 작품까지

일 트로바토르 Il Trovatore | 맥베스 Macbeth | 라 보엠 La Bohème 2022 | 호프만의 이야기 Les Contes d'Hoffmann 2022

Free VOD
무료로 즐기는 콘서트 오페라

제22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본선 | 제21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본선 | 한여름밤의 오페라 여행 - 광주 | 제20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본선

크노마이오페라
온라인으로 만나는 오페라의 감동! 국립오페라단이 운영하는 '크노마이오페라(KNO myopera)'는 시간간의 제약 없이 관객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다. 정기공연 생중계만 아니라, 고화질과 뛰어난 음향으로 기록된 지난 작품까지 VOD로 언제든 즐길 수 있다. 작품은 편 단위로 결제하고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이오페라 멤버십 회원(스탠드드 연간 33,000원/프리미엄 연간 99,000원)에 가입해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유료 멤버십이 부담이라면 무료로 공개된 콘텐츠를 먼저 감상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술의 기록 | 작품소개 | 예술의 소식

문학 +
시골로 가는 날들 | 코로나가 가져온 학교생활 변화 | 만다린 시대와 북 토크(가카오 음)과 '올림피아스' 에세의 시 낭독 중첩... | 올림피아스의 허풍

시각예술 +
일라스트북으로 본 두 세계의 단면 | 연꽃고리 | 코로나19 단절을 넘은 연결 | 거리두기의 흥

공연예술 +
이 시대의 사랑법 | 장민자극교육TV | 마음방역 | oo와 노는 아이들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유례없는 일상의 변화를 일으킨 감염병은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한 시기를 지나 창작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를 현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다양한 작업 결과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누리집을 소개한다.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예술 바람이 불어올 때 '아트페스티벌_기울'	32	54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10 우리 함께+잠실에서 예술 같은 생활, 생활 같은 예술 제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예술가의 진심 강미선, 고요하게 헤엄치는 백조처럼	걷다가 마주친 춤 어떤 싸움은 의미가 있다
03 공연	18 거리예술+서울광장 예술로 밝힌 거리로 나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3	40	56
04 전시	28 발레/오페라+한강 노들섬 노들섬에 흐르는 클래식 낭만 2023 한강노들섬클래식	페이퍼로그 문화예술과 시민을 숫자로 잇는다면 경영기획팀 김지우	낮맑은 새가 들고 날맑은 시가 줍는다 더운 날에도 데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마음 -더위잡다
05 축제/행사		42	58
06 온라인 콘텐츠		문화+후원 미식과 예술의 감각적인 동행 신세계L&B×서울문화재단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푸른 점화 '우주'와 '창백한 푸른 점', 김환기
		44	60
		인사이드 과정과 실험의 주체로서 금천예술공장 실험프로젝트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하루 축제로 거듭난 남이장군사당제
		46	62
		예술단체 아카이브 사진 잇다 창작집단 LAS	컨트리뷰터
		48	
		트렌드 즐길 준비 되셨나요? 2023 미술주간	
		50	
		해외는 지금 세계 무대에 통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현장 취재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예술 바람이 불어올 때 아트페스티벌_가을

한층 선선해진 바람에 가을을 실감하는 지금. 서울광장에서, 잠실체육관에서, 노들섬에서, 더 멀리 서울 곳곳에서 예술 바람이 산들거린다.

9월 23일 개막을 알리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한 달간 생활예술과 함께하는 특별 주간이 이어지며, 예년보다 이른 한가위 휴일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시민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이윽고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한강변에서 즐기는 발레·오페라까지. 예술적인 가을을 만끽하기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예술 같은 생활, 생활 같은 예술

제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일상을 예술처럼 살아가며,
또 예술 활동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멋진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2022년 10월 3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위축된 생활예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1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전까지 소규모 모임·행사 외에는 재능과 끼를 펼칠 기회가 없었던 생활예술인에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친구·가족·지인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함께 무대에서는 즐거움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긴 시간 염원해온 '일상의 회복'을 실감하기에 충분한 순간이었다.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제의 장,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올해 9월 23일 토요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천여 명 시민이 예술가가 돼 3개월 동안 축제를 준비했으며, 음악·무용 등 공연 장르는 물론 회화와 공예를 포함한 전시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민합창단과 동행오케스트라,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공연 동호회 25팀 및 전시·체험 동호회 15팀 등 축제의 두 번째 해를 맞아 어떤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그 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개막 프로그램 개막공연과 서울생활예술주간 선포식

서울시민합창단은 25개 자치구 구민으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으로, 총 200명 시민이 3개월의 연습을 거쳐 가곡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노래를 부른다. 동행오케스트라는 장애×비장애 시민 100명이 함께 연주하는 시민오케스트라로, 공모로 선발된 시민 단원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별 공연 외에도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서울시민합창단과 동행오케스트라 300명의 합동 공연은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의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서울생활예술주간은 서울의 생활예술 집중 활성화 기간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축제가 열리는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를 서울생활예술주간으로 지정해 25개 자치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한데 엮어 홍보한다. 이에 앞서 열리는

서울생활예술주간 선포식에선 축제와 해당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호회 프로그램 40팀의 경연 무대와 전시·체험 프로그램

축제의 본행사인 생활예술 동호회 공연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동호회 40팀이 참여한다. 동호회 공연은 단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던 지난해와 달리 경연 방식으로 진행돼 관객에게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며, 전문가 심사와 관객 투표를 거쳐 25팀의 동호회 중 3팀에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동호회 전시에는 지난해보다 1팀 늘어난 15팀이 참여하며, 올해는 잠실실내체육관 앞 야외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에게 보다 넉넉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공연 장르는 에어리얼 스윙댄스, 스트리트댄스, K-팝댄스, 한국무용, 해금, 가야금, 밴드, 아코디언, 플루트, 클래식 기타 등으로,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시·체험의 경우 전통매듭, 양말목공예, 아크릴 회화, 캘리그래피, 미디어아트, 종이공예, 한지공예, 식물공예, 사진 등 여러 동호회가 참여하며,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품 관람은 물론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제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 9월 23일 | 잠실실내체육관
- ★ 1부 개막 프로그램(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민합창단(with 우주호 성악가)
동행오케스트라(with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서울생활예술주간 선포식
- ★ 2부 동호회 프로그램-공연(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에어리얼 스윙댄스, 스트리트댄스, K-팝댄스,
한국무용, 해금, 가야금, 밴드, 아코디언, 플루트,
클래식 기타 등
- ★ 2부 동호회 프로그램-전시·체험(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전통매듭, 양말목공예, 아크릴 회화,
캘리그래피, 미디어아트, 종이공예, 한지공예,
식물공예, 사진 등



김영숙·류정아·김서현
서울시민합창단&
공연 동호회

세 모녀 가운데 가장 먼저 생활예술의 재미를 경험한 건 조모 김영숙 씨. 그는 우쿨렐레&홀라춤 공연 동호회의 일원으로 지난해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의 딸 류정아 씨는 좋아하는 예술 활동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류정아 씨는 그의 딸 김서현 양과 손잡고 서울시민합창단에 합류했다. 이 기회에 용기를 내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올해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서 각각 서울시민합창단과 공연 동호회로 무대를 장식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처음엔 동호회가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어요. 봉사하는 것, 좋잖아요. 우쿨렐레 연주와 홀라춤을 배웠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초등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가르쳐주고 그랬죠. 그렇게 이 활동을 한 지 5~6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하루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만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쪽 연주하고 춤추는 것이 목표예요. 끝까지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김영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요.(웃음) 그래도 혼자 부르는 것과 합창은 다르잖아요. 내가 조금 못해도, 같이 해나가는 거니까요. 사실 오디션 영상을 녹화하고 지원신청서를 쓰면서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기회를 주셨으니, 열심히 해 봐야겠죠. 딸과 함께 참여한 건, 그저 합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단체 생활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가끔은 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수도 있지만 함께 노래한다는 것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다른 일을 할 때도 좋은 동기가 됐으면 합니다.” 류정아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불러요. 학교에서도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합창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다양하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니 특히 고음을 잘 불러보고 싶어요.” 김서현



한정진·신윤희
동행오케스트라

서로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까지도 닮은 부부가 처음 합을 맞춘 건 대학 동아리 합주단에서였다. 어릴 적 바이올린을 배운 경험이 다시금 떠오른 신윤희 씨와 대학에서 처음 바이올린을 손에 친 한정진 씨. 교육대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두 사람에게 악기는 또 다른 꿈이 담긴 존재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교사실내합주단에 합류해 꾸준히 아마추어 단체 활동을 이어간 두 사람은 이내 백년가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쪽 음악과 삶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악기 연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음악도 좋지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악기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 경험은 학교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합주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서 전교생 1인 1악기 교육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운영했어요. 발달장애 친구들도 오케스트라를 경험할 때

변화한다는 걸 직접 보고 느꼈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음악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연주에서 자꾸 제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웃음) 실제로 악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소리에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냥 끊임없이 음악을 듣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윤희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활동을 쉬긴 했는데, 이렇게 일에 파묻혀 살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어요. 음악적인 성장을 위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활동하다 보면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오케스트라는 취미로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재정적인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도 요즘은 전공자분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동행오케스트라처럼 서울문화재단 같은 기관·기업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 동행오케스트라가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더 신청하게 됐어요. 일전에 장애인 연주단체가 학교에 와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좀 더 이들과 가까이에서 인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함께하는 경험이 기대돼요. 잘하지는 못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동행오케스트라를 신청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역경을 딛고 한계를 극복한 음악가라는 조금은 뻘스토토리 때문에 좋았는데, 깊이 알게 될수록 그와 동시에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갈 음악도 기대가 됩니다.” 한정진



“올해도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열린대!” 한 친구의 카톡은 이들을 곧장 다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스트리트댄스 동호회 ‘B.Zip’은 지난해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COLLABO 250’을 계기로 20대 댄서 10명이 꾸린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과 락앤롤크루에서 모집한 시민 댄서로 처음 만났지만, 페스티벌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만나 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춤을 알려주면서 유대감을 쌓았다. 지난해 공연의 부제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에라 모르겠다 춤이나 추자’였고, 이들은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춤 하나로 뚝뚝 뭉쳤다는 점에서 팀 이름을 ‘비지비지 busy busy, BZBZ’로 지었다가 ‘집합체’, ‘압축’의 의미를 더해 지금의 팀 이름인 ‘비집B.zip’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춤을 향한 열정과 애정 하나로 모여 가족 같은 단체가

된 이들에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의 의미는 남다르다. “저희에게는 지난해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준 행사인데, 또 한 번 마포구를 대표하는 스트리트댄스 팀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죠. 금의환향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K-팝댄스를 시작했다가 점점 스트리트댄스의 매력에 빠졌고, 지금은 락킹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데요. 동호회나 크루를 통해 함께 그룹을 이뤄 춤춘다는 것은 희열이 상당히 커요. 칼군무 같은 매력도 있고요. 이제 B.zip은 제 삶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장진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학교 선배의 공연을 보고 첫눈에 빠져 락킹을 시작했어요. 락킹은 추는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신나는 음악에 맞춘 ‘해피 바이러스’ 같은 춤이죠. 그러다보니 다소 소심했던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졸업할 즈음에는 댄서로서의 꿈을 꾸게 됐어요. 동호회에서 함께 춤추며 좋은 작품이 완성됐을 때의 희열이 상당한 것 같아요. 나 혼자가는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겠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 과정은 마치 몸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가 춤을 추고 있으면 그 움직임에 맞춰 재밌는 동작을 가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무대에서 호흡하는 게 춤의 매력이 아닐까요? 저희 팀은 힙합·락킹·웍킹·코레오그래피뿐만 아니라 재즈 코레오그래피·라틴·UK재즈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추는 멤버로 구성돼 있어요. 올해도, 지난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꼭 보러 오세요!” 고경민

고경민·장진주
공연 동호회 ‘B.Zip’



전주희
전시·체험 동호회
‘친환경 생활 꽃꽂이’

‘꽃꽂이는 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전주희 씨의 말에는 꽃꽂이 힘이었다. 꽃꽂이하면서 슬픈 일, 힘든 일 모두 이겨냈다는 그는 적어도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고 한다. ‘친환경 생활 꽃꽂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생활예술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 참가하고자 바지런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 꽃꽂이 동호회가 참여한 것 같아요. 우리 동호회는 거기에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추가했죠. 친환경이라는 점이 좀 특별했다고 생각해요. 무료로 했던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올해는 커피숍에서 버려지는 컵 캐리어와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꽃꽂이를 해 보자는 거죠. 우리 동호회는 참여자의 연령대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해요. 꽃꽂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다가 정년퇴직한 뒤에 제2의 직업으로 찾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선생님도 참여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기 일쑤죠. 머리를 싸야 하는 일도 많고요. 자녀 걱정, 남편 생각, 시댁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 적어도 두 시간 동안은 그런 걱정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꽃을 예쁘게 만질까 생각하고 고민하면 금세 머리가 비워지고 맑아져요. 저는 ‘꽃을 인생에 빚대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꽃은 꽃은 20대예요. 내일은 30대, 이를 지나면 40대, 그리고 걷을 때쯤 되면 70~80대를 바라봐요. 마치 나의 인생 같아요. 그러니 버릴 때도 예쁘게 가려서 버려달라고 하죠. 올해 전시에 참여하는 동호회원은 17명 정도 돼요. 보통 독일 스타일의 서양 꽃꽂이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동양 꽃꽂이를 하죠. 우리 자연의 풍경을 많이 표현하고, 옛 정취를 깔고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볼거리도 다양하고요. 올해 페스티벌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예쁜 작품을 내놓을 테니 많이 찾아주세요.” 전주희



2023 서울생활예술주간 행사 모아보기

- [강남구]**
강남문화재단 gfac.kr
목요예술무대 <여섯 번째 파장, 박규희>
9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강남쌈어터
- [강동구]**
강동문화재단 gdfac.or.kr
강동생활예술축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강동아트센터 아트갤러리 그림·소극장 드림
- [강북구]**
강북문화원 gbculture.or.kr
강북문화재단 gbcf.or.kr
한가위한마당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
우이천 거리예술 축제
<강북 꿈꾸는 물고기>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강북구 우이천(생한교~벌리고 2.6km 구간)

- [강서구]**
강서구청-다시서점
cafe.naver.com/gangseoartculture
강서문화원 kcc2000.or.kr
몽클락데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초이아트홀
강서구 하늘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강서아트리움 아리홀
- [관악구]**
관악문화재단 gfac.or.kr
관악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9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1층 스타라운지
관악 '악자와의 동행' 생활예술 작품 전시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2층 시그니처라운지
- [광진구]**
광진문화재단 naruart.or.kr
나루랑버스킹×건대프리마켓

-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나루아트센터 야외공연장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guroartsvally.or.kr
수 이트마켓
10월 7일과 8일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gcfac.or.kr
생활문화축제-공연
10월 21일 오후 2시
가산현대시티아울렛 1층 야외무대
생활문화축제-전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가산현대시티아울렛 6층
-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nowonarts.kr
2023 노원 생활문화축제 <모두의 놀터>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여성공예센터 앞마당
-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dbfac.or.kr
도봉 예술이야

-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정) | 평화문화진지 일대
-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ddmac.or.kr
문화모아 이어달리기-전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
문화모아 이어달리기-공연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동대문구청 아트작강당
문화모아 이어달리기-문화공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경동시장 청년몰 2·3층
- [동작구]**
동작문화재단 idfac.or.kr
크크크 프로젝트: 폼트리 워크
10월 5일부터 7일까지(예정)
동작구 소재 문화공간
-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mfac.or.kr
마포구 생활예술 축제 꿈의무대M 페스티벌
10~11월 중 예정 | 마포문화재단 플레이백

- [서대문구]**
서대문구청-무소속연구소 musosoklab.com
월간사랑방-소리명상&스님과 좌담명상
9월 12일과 20일 오후 8시
홍대선원 JustBeTemple
-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seochocf.or.kr
서초생활예술축제 <달빛 페스타>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초문화재단·흰물결아트센터
- [성동구]**
성동문화재단 sdfac.or.kr
문화 in 우리동네
10월 21일 토요일 | 소월아트홀 문화광장 앞
-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sbculture.or.kr
성북생활문화주간 <동네가 놀이터>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및 석관동 일대
- [송파구]**
송파구청 songpa.go.kr
우리지금 송파와 송네방네

- 9월 5일부터 24일까지 | 문화실험공간 호수·석촌호수 아뜰리에·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 [양천구]**
양천문화재단 yfac.kr
주민일상 기록사업 <눈, 코, 입>
12월까지 | 양천구 전역
-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ydfcf.or.kr
어린이 댄스 프로젝트
9월~12월,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발표)
민들레학교지역아동센터
- [용산구]**
용산구청 yongsan.go.kr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9월 1일부터 10월 21일 중 예정 | 한남동 일대
- [은평구]**
은평문화재단 efac.or.kr
시니어 시낭송회 <맛있는 詩>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구산동도서관마을 마당
은평 생활문화축제-
이상하고 일상적인 불광천랜드

-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응암역 교통성 너른마당
꿈꾸는합창단 10주년 공연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jfac.or.kr
종로 생활문화주간 행사
어린이 댄스 프로젝트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
- [중구]**
중구문화재단 caci.or.kr
모두의 일상 생활예술축제
10월 21일 토요일 | 다산어린이공원
- [중랑구]**
중랑문화재단 jnfac.or.kr
중랑생활예술축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용마포공원
중랑구민 연극동호회 공연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문화예술단체]**
유한책임회사 아트 <젤베의 시대>
9월 23일 토요일 | 채널1969(예정)
순환창작소
<임상댄스 프로젝트: 바로, 지금, 여기>
10월 8일 일요일 | 공백공유
이로물문화 <시민오페랄라랄라~>
10월 8일 일요일 | 도봉구민회관
카로스타악기양상블 <다함께 타타타>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소월아트홀
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의 신중년×청년 그림자+음악극
<도림천 생활예술: 판>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7시
도림천 수변무대 및 인근(예정)
극단 즐거운사람들의
신중년 가부악극 <닐리리 맘보>
일정 및 장소 미정

예술로 밝힌 거리로 나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3

풍성한 한가위, 일상 공간이 예술의 손길을 타고 환상의 축제 공간으로 변화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동하는 광장에서 보내는 명절 휴일은 어떨까.



한가위 보름달처럼 거리를 예술로 환히 비춰줄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오는 9월 29일 개막합니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도심형 거리 예술축제'로, 서울광장 일대를 무대로 삼아 예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죠. 작품 30여 편, 예술가 170여 명이 수놓을 거리예술과 전시,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광장에서의 색다른 달맞이

9월 29일 한가위 당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전 출연진이 시민을 맞이하는 한대의 보름달 파티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참여 예술가 50여 명과 자원활동가 100여 명, 그리고 축제 현장을 찾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죠. 음악·무용·서커스 등 다양한 복합 장르 공연이 진행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희문, 천하제일탈공작소×프로젝트날다, 멜랑콜리댄스컴퍼니·LDP, 코드세시·류성국, 프로젝트루미너리의 공연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확장하는 거리예술의 가능성

축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기획 제작 프로그램으로 현대 거리예술 요소가 결합한 두 작품을 선보입니다. 먼저, 천하제일탈공작소×프로젝트날다의 <별 게 없다>(가제)는 전통연희와 공중극에, 그리고 설치미술이 결합한 공연으로, 탈춤을 기반으로 관객과 교감하는 천하제일탈공작소와 공중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날다의 역동적인 시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해외 초청 작품으로는 새로움, 그리고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대중성에 기반해 엄선된 호주·프랑스·네덜란드 등 6편 내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 섭외 작품으로는 작품의 완성도와 축제 방향성, 관객층을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팀을 섭외했습니다. 국내 공모 선정 작품으로는 지원작 178편 가운데 선정된 거리극·음악극·무용 등 12편 작품이 서울광장과 인근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공모 작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다시 열린 거리와 공간 닫혀 있던 거리 속 갈증, 환경 및 세대, 도시 속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예술가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리'라는 장소성을 잘 이해하고, 관객과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작품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광장과 광장을 연결하는 축제 공간

시각예술 작품 전시도 축제 기간 서울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의 광장과 빌딩, 공원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전시 작품을 선보이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연결하는 축제 공간 연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틀리에 시수 Atelier SISU가 선보이는 <Moon>(가제)은 거대한 풍선을 오브제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 자연의 우아함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호주 시드니를 기반으로 설치 조형물을 만들어온 이들의 작업 방향은 특히 공공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관객에게 색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올해 축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예술과 미디어, 빅데이터,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융합형 예술 분야로 작품 세계를 확장 중인 금민정 작가는 <광장>(가제)이라는 작품을 통해 서울광장에 있는 가림막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입니다.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융합을 위한 소통이 중요해진 지금, 예술과 디지털의 경계를 미디어에 담아 빚어낸 거리예술 전시를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스펙터클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광장에서 진행된 지난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우천으로 인해 폐막작의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지만, 모두 함께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느낀 광장의 해방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예술가는 물론, 관객과 관계자까지 거리예술축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어느덧 팬데믹 이전처럼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중에도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시민의 정서 회복, 문화적 감수성, 공감을 얻어낸다는

→ 벨랑클리댄스컴퍼니 <초인>

→→ LDP <재생> ©BAKI

축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왜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하려는가?', '축제를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관객) 없이는 축제도 의미가 없다는 걸 지난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시민이 축제에 기대하는 바를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야 하는 시대'라는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극복하고 욕망하는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서사'를 읽고 보는 것이 지금의 축제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가 됐죠. '서울'은 각자의 가치가 더 분명한 도시이기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광장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중한 공공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리예술은 일상적인 공간을 무대로 바꿉니다. 나아가 일상과 예술 사이의 벽을 허물고 무심히 지나던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리예술축제의 독창성은 예술 활동의 무대가 거리, 일상, 공공의 공간에 있다는 점, 작품과 관객이 열린 형태로 관계하며 축제성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거리예술축제는 관객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교감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원'

예술이 거리로 나오게 된 '원'을 탐색하고, 코로나19 시기가 끝난 후 다시 축제를 '원'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다채로움variety을 만나고 다양성diversity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서울광장과 거리에서 사람과 사람이 맞잡은 손으로 보름달을 만들겠습니다. 수고와 노동을 멈추고 인간이 인간에게 관대해지는 축제의 기'원'을 만나러 오세요. 대부분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고, 일부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안내는 서울거리예술축제 누리집(ssaf.or.kr)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축제에 참가한 천하제일탈공작소×고성오광대보존회×프로젝트날다 <거리>
 ◀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배치-기>

#올해 특히 달라진 점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자원활동가가 돌아옵니다. 축제 자원활동가들은 적극적인 축제의 일원으로, 예술을 마음껏 즐기며 관객과 예술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팬데믹으로 활동을 잠시 멈췄던 서울거리예술축제 '길동이가' '자원활동가'라는 이름으로 4년 만에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올해도 축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활한 축제 진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플래시몹과 같은 활동으로 관객들과 즐겁게 소통할 예정이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자원활동가 100여 명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2022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축제팀으로 통합됐습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고유의 기능인 '창작 지원-교육-배급-교류 및 네트워크'와 축제를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시도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발굴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서커스 상주형 단체인 공연창작집단 사람·코드세시가 준비한 공연까지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라운드테이블, 피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예술 관련 담론을 나누며 더 나은 거리예술과 축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더 깊게 즐기고 싶다면?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거리예술축제 뉴스레터인 'SSAF LETTER(싸프 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공연 정보와 예술가 인터뷰, 자원활동가 이야기, 축제 비하인드 스토리 등 볼거리·읽을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뉴스레터 콘텐츠는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니 놓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3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광장 일대



서울거리예술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03년 도심 속 종합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거리예술을 중심 테마로 설정했고, 2016년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아시아 최고의 거리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년에 걸쳐 크고 작게 변화해온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역사에서 자원활동가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축이다. 2013년 '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집한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축제를 만들어왔다. 공연 및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관객 동선 관리, 안내 부스 운영, 현장 사진 및 영상 기록까지 자원활동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자원활동가를 볼 수 없었지만, 올해는 다시 89명의 자원활동가가 축제에 함께한다.

지난 8월 1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대식에선 올해 축제의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1시간 30분간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한 화두인 만큼, 모두 눈을 빛내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팀별 활동을 통해 동료 자원활동가들과 친목을 다지는 순서를 가졌다. 올해 자원활동가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공연 전반을 관리하는 '공연팀', 피칭·포럼 등 전문가 프로그램부터 시민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팀', 안내 부스와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를 담당할 '홍보·아카이빙팀', 그리고 파트별 현장 지원과 안전 관리를 하는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발대식에 참여한 이들은 서로를 알아가며 축제 전까지 이어질 파트별 교육과 두 차례의 역량 교육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원래 자원 활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2016년에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처음 알게 돼서 그해부터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원 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올해 재개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12차선 도로를 완전히 시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함께 거리에 모여 즐겁게 예술 작품에 참여한 모습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수많은 축제를 다녀봤지만,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매력은 가족 단위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올해는 특히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원래 수준으로 개최하는 축제이기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던 아쉬움이나 그리움, 기다림이 좋은 의미에서 폭발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축제의 즐거운 순간들을 열심히 포착해보겠습니다."

김희준
2023 자원활동가
(홍보·아카이빙팀)
2016~2019 길동이



"저는 중국에서 온 우지아쿤입니다. 한국에서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중 공연경영을 전공하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실습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2019년 축제에 길동이로 참여하게 됐죠. 당시 <공공의 24시간>이라는 작품을 담당했는데, 말 그대로 정해진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관객을 만나는, 길고 힘든 공연이었어요. 몸은 고됐지만 시계가 '24:00'을 찍는 순간 아티스트와 공유한 희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길동이로 활동하면서 좋은 한국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됐고, 학교에서는 축제 관련 프로젝트 기획안도 써볼 수 있었죠. 여러모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한다는 건 서울을 알아가고, 서울의 공연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에게도 여행 가면 관광지만 들리지 말고 그 지역의 축제를 가보라고 추천하곤 해요. 내국인만 아니라 이번 명절을 서울에서 보내게 될 많은 외국인분들도 축제를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아쿤 WU JIAKUN
2023 자원활동가
(공연팀)
2019 길동이



오채린
2023 자원활동가
(프로그램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작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처음 자원 활동을 했는데, 축제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축제 현장에 뛰어들고 싶어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에 지원했습니다. 저한테 축제는 느낌표 같은 존재예요. 다른 일을 할 때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은 물음표가 끊임없이 생기는 데 반해 축제 현장에 있을 땐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특히 이번 축제는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데요. 명절 음식 준비로 지친 분들이 놀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큰 미디어아트나 공연 작품도 많으니,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연인끼리도 서울 도심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책,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여행권

SSAFI

서울신문
한독프레스세

SEOUL FINANCE CENTER

SPARKPLUS
BNK 금융

MY BEAUTY

SSAFI
SEoul Street Art Festival

노들섬에 흐르는 클래식 낭만

2023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나 오페라 같은 작품은 극장에서나 즐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 산들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정통 클래식을 만끽하는 오직 나홀간의 기회가 온다.

2022년 10월, 서울문화재단 최초의 제작 오페라 <마술피리>의 막이 올랐다. 최근 '글로벌 예술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노들섬이 그 무대였다. 선선한 가을 저녁,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노들섬을 가득 채운 <마술피리>의 아리아는 함께한 관객들의 낭만을 채워줬다. 아쉽게도 한 회차는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예술인 116명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16개국 대사 외에 여러 오페리언 리더가 함께했으며, 티켓 예매가 1분 내 전석 매진되고 3,200명의 시민 관객이 열띤 호응을 보여주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외 클래식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마술피리>의 감동에 이어 올가을, 더 풍성한 클래식 축제로 '한강노들섬클래식'이 다시 돌아온다. '한강노들섬클래식'은 엔데믹을 맞아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한강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석양 명소를 중심으로 한강변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프로젝트)에 발맞춰 '글로벌 예술섬'인 노들섬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클래식 공연을 노들섬 야외에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오페라 장르에 발레를 더해 10월 14일부터 15일(발레), 21일부터 22일(오페라)까지 총 4일간 전막 공연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장르를 확장해 콘텐츠를 다양화한 것 외에도 2023 한강노들섬클래식은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이들이 보러 올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전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좌석을 확장하고, 피크닉존을 구성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을 고려해 전화와 현장 예매 등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문턱은 낮췄지만, 품격은 높였다.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이는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신진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클래식의 정통성을 한껏 살린 무대를 선보인다. 노들섬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무대 세트와 객석을 조성하고, 야외 환경에 걸맞은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다각도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모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잘 만든 '고전'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2023 한강노들섬클래식의 무대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Timeless Classics'으로 채워진다. 극장의 문턱을 넘어 일상으로 스며드는 클래식 축제가 되고자 한 시도에서, 그 포문을 여는 주제로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는 '고전'을 선보이는 것은 의미가 깊다. 여러 고전 중에서도 한강노들섬클래식이 선택한 작품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와 발레 <백조의 호수>다. 각각 1816년과 1895년 로마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작품이지만, 젊은 연인의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 질투와 훼손, 굳은 신념과 정의 실현의 이야기는 시공을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삶의 이야기로 가장 보편적인 인간사가 담겨 있으면서도, 비극과 희극을 통해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두 작품이 가져다줄 몰입의 순간을 기대해본다.

발레 블랑의 정수 <백조의 호수>

푸른 달빛이 일렁이는 숲속 호숫가, 그리고 가을밤 한강 노들섬. 발레 <백조의

호수>의 작품 배경과 너무도 닮아 있는 노들섬 특설 무대는 아마도 관객을 순식간에 작품 속으로 몰입시키기에 탁월한 공간일 것이다.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뛰어난 안무, 여주인공이 열연하는 1인 2역뿐만 아니라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각국의 캐릭터댄스 등 관객이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춰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발레의 명작이다. 특히 우아한 클래식 튀튀tutu를 입은 발레리나들이 차이콥스키의 유려한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대열을 바꾸며 춤추는 백조 군무

장면은 발레 미학의 절정이라 불리는 '발레 블랑Ballet Blanc(백색 발레)'의 대표 장면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관람 포인트다.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과 발레STP협동조합(서울발레시어터·와이즈발레단)이 한 무대에 올라 감동을 극대화한다.

오페라 부파의 대명사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희극 오페라)'의 거장 로시니의 대표작으로, 젊은 귀족 알바비바백작이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평민 여인 로지나와 결혼하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시대를 풍자하는 유쾌한 스토리에 희극성을 극대화하는 레치타티보recitativo, 개성과 캐릭터들의 향연은 물론,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재주꾼Largo al factotum', '방금 들린 그 목소리Una voce poco fa' 등 잘 알려진 아리아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에서는 정통성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연출가 표현진을 필두로, 소프라노 박혜상, 테너 김성현, 바리톤 안대현 등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스타 캐스트들이 만나 명작을 재현해낸다. 노들섬과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세트가 극의 이해를 도우며, 노이오페라코러스, 젊은 지휘자 김건이 이끄는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클래식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 우리가 꿈꾸던 발레와 오페라는 오직 '한강노들섬클래식'에서만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9월 13일 인터파크티켓 누리집에서 예매가 시작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강노들섬클래식 공식 인스타그램(@hangangarts.sfac)과 블로그(blog.naver.com/hangangarts_sfa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오후 6시
한강 노들섬 잔디마당
★ 러닝타임 1시간 30분(인터미션 없음)
★ 출연 유니버설발레단, 발레STP협동조합(서울발레시어터·와이즈발레단)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오후 6시
한강 노들섬 잔디마당
★ 러닝타임 1시간 50분(인터미션 없음)
★ 연출 표현진, 지휘 김건
★ 출연 안대현(피가로), 박혜상(로지나), 김성현(알마비바), 김경천(바르톨로), 김철준(돈 바질리오)
★ 연주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창 노이오페라코러스

예술가의 진심

강미선, 고요하게 헤엄치는 백조처럼

페이퍼로그

경영기획팀 김지우

문화 + 후원

신세계L&B×서울문화재단

인사이드

금천예술공장 실험프로젝트

예술단체 아카이브

사진 이다

창작집단 LAS

트렌드

2023 미술주간

해외는 지금

에든버러 페스티벌 현장 취재기

Associative

강 미 선

고 요 하 계

혜 엄 치 는

백 조 처 럼





자고로 발레는 과시의 예술이다. 다리를 높게 들어올리기 위해, 기쁘고 높이 뛰기 위해, 빠르고 많이 회전하기 위해 연습하고, 그것이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무대 위에서 보여야 한다. 가볍게 두 바퀴만 돌고도 대단한 테크닉을 수행한 것처럼 당당해야 하고, 비록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군무)의 일원일지언정 무대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예쁘다는 듯 미소지어야 한다. 그런데 강미선이 걸어온 궤적만큼은 그러한 과시와 거리가 먼 듯하다.

지난 6월 들려온 기쁜 소식에 힘입어 여름휴가를 마치고 발레단에 복귀한 그와 만났다. 강미선의 브누아드 라당스(Benois de la danse) 수상은 한국인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록된다. 앞서 슈튜트가르트발레의 강수진(1999), 국립발레단의 김주원(2006), 마린스키발레의 김기만(2016), 파리오페라발레의 박세은(2018)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2023년의 주인공이 강미선인 것은 한국 발레의 발전과 궤를 함께하며 국내 무대에서 20여 년간 ‘롱런(long-run)’한 그를 향한 찬사같이 더욱 값지다. 런스루를 마치고 인터뷰를 위해 다시 연습실에 들어선 강미선은 들뜨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어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한국 창작발레에 대한 애정

“그다음 날에도, 일주일이지나고도, 한두 달이 흘렀는데도 제가 (상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 믿기지 않아요. 주변에서 수상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면 그제야 ‘아, 내가 상을 탔지’ 하고요. (웃음) 언제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좀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네요. TV 뉴스에 보도된 덕에 아파트 주민분들까지도 축하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올해 브누아드 라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 후보는 현 파리오페라발레 최고의 스타 도로테 질베르, 마린스키 발레의 메이 나가히사 등 동서양을 아울러 6명. 강미선은 중국국립발레단 추윈팅(Qiu Yunting)과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이 열린 6월 20일에는 후보들의 갈라 공연이, 21일에는 올해를 포함한 역대 수상자가 참여하는 갈라 공연이 열렸다. 수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준비해야

했고, 시상식이 열린 직후 무대에 올라야 하는 일정이었다.

“사실 시상식과 특별 갈라를 위해 출국할 때만 해도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함께 후보에 오른 분들이 워낙 유명한 발레리나들이니까요. 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갈라 공연을 계기로 삼아 한국 발레가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알리고 오자는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갔는데,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고 나니 그때부터 부담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저 발레리나가 상을 받았는지 궁금할 테니까요.”

강미선에게 수상의 기쁨을 가져다준 작품은 유병현 안무 ‘미리내길’ 파드되(Pas de deux). 죽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리움을 표현한 남녀 2인무로, 지평권의 음악을 바탕으로 창작돼 2021년 초연했다. 지평권은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프로그램 <오마주 투 코리아>와 여러 편의 한류 드라마 사운드트랙으로 잘 알려진 음악감독이다. 다음 날 열린 갈라 공연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춘향> 중 파드되를 선보였다.

“지난 3월에 공연한 <코리아 이모션(Korea Emotion)>은 ‘정情’으로 대표되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녹여낸 작품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중 ‘미리내길’은 음악으로 국악 연주곡을 사용하다 보니 표현 면에 있어 한국적인 춤사위와 호흡이 많이 묻어나는 작품이죠. 2021년 초연을 준비하면서 안무가와 함께 음악에 어울리는 동작, 표현 등을 구상했어요. 저는 우리 음악에 춤추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꽤 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작품에 깊은 애정이 생겼어요. <춘향>도 2007년 초연에 앞서 쇼케이스 때부터 참여한 작품이거든요. 향단이 역할부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함께한 작품이라 그렇지 두 작품 모두 애정이 가요.”

전 세계 명작 레퍼토리를 두루 보유한 러시아에서 발레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현지 관객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가 뒤따랐고, 공연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찾아와 아름다웠다며 감상을 전하는 관객도 많았다. 우리나라 창작발레가 러시아를 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었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오랜 시간 한국 창작발레에 공들인 덕도 크다.

“<춘향>은 차이콥스키 음악을 사용하거든요. 러시아 볼쇼이극장에서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한국적인 발레를 선보인다는 게 관객에게도 신선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클래식 발레와 마찬가지로 토슈즈를 신고 추기 때문에 하체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신체 표현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죠. 클래식 발레가 절제하고 상체를 활짝 펼쳐서 정형화된 동작을 보여준다면, 한국적 작품에선 손끝의 힘을 풀고 팔 동작도 조금 더 늘어뜨려 사용해요. 비유하자면 우리 전통무용에서 한삼을 뿌리는 것 같은 에너지를 보여주죠. 특히 호흡에 있어서 차이가 커요.”

차근차근 한 계단씩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은 근속 21년 차를 자랑한다. 평범한 회사원도 아니고 무용수에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2002년 연수단원으로 입단해 차근차근 오며 지금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그렇다. 그가 처음 무용학원에 발 딛던 때부터 짚어보니 그저 발레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춤추은 시간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하셔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미술학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죠. 그러다 외숙모께서 무용학원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덟 살 때였어요. 월·수·금요일에는 발레를 하고, 화·목·토요일에는 한국무용·현대무용을 했어요. 무용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죠. 시간이 많으니 저녁까지 남아서 춤추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그중에 발레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발레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다가 오게 된 곳이 유니버설 발레 아카데미였어요. 기초반에서 시작해서 2주 지나고 기본반으로, 또 2주 지나고 상급반으로 올라갔더니 전공으로 해 보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카데미에 다니던 지 한 달 반 만에 입시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술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반은 유니버설발레단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어린 강미선은 그때 처음 발레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엄마의 손을 잡고 위층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 발레단 연습실이 있었다. 아이의 꿈이 발레리나가 된 순간이다. 아카데미에서 빠르게 월반하고 선화예술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꾸준히 강미선과 발레단의 연이 이어졌다. 중학교 재학 중에 <호두까기 인형>의 어린 클라라役に 발탁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섰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돈키호테> 등 작품에 객원으로 출연하기도 한 것.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꿈은 자연스럽게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하겠다는 목표로 또렷해졌다.

이후 그는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결정, 2년간 유니버설발레단과 연계된 워싱턴 키로프 발레 아카데미에 다녔다. 스스로 늦은 나이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춤에 대한 판단이 확고했다고

회고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했고, 치열하게 노력했으며, 짧지만 미국 워싱턴에서의 시간은 충실하게 보냈다. 키로프 발레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곧장 한국에 돌아와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했다. 그리고 2005년 드미 솔리스트, 2006년 솔리스트, 2010년 시니어 솔리스트를 거쳐 2012년 수석무용수가 됐다.

“수석무용수가 돼야지, 하는 조급함은 없었어요. 승급과 자리 욕심보다는 내가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대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코르 드 발레에서도 주역을 할 수 있고, 솔리스트나 드미 솔리스트도 주인공을 맡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솔리스트 배역 중에서도 재밌고, 좋아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어요. 수석이 된 후에도 그런 역할을 할 때면 마냥 좋더라고요.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 역할을 좋아해요. 어릴 때 아역으로 양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 <오네긴> 3막 파드되 ©Kyoungjin Kim/Universal Ballet

함께 춤춘 양치기 소녀 선생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랫동안 제 로망이었달까요. 스페인 공주도 너무 재밌죠. 캐릭터 댄스를 좋아해요. <라비아데르>의 주인공은 니키야지만 감타티 역할도 매력적이고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파랑새도 좋아해요. (웃음) 지금은 안 시켜주셔서 아쉽긴 한데, 어린 친구들에겐 이런 역할이 기회이니 언니가 욕심내기엔 부담스럽겠죠?”

어렵지만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관객의 입장에서 강미선의 춤을 다시 보게 된 계기를 짚자면 존 크랭코John Cranko 안무 <오네긴>을 이야기해야겠다. 1965년 초연한 이 작품은 오페라와 달리 차이콥스키의 음악 여러 편을 플롯에 맞게 재구성해 ‘드라마발레’라

불리는 발레사의 한 장르를 대표하는 명작이 됐다. 유니버설발레단은 2009년 작품의 국내 초연을 성사시켰다. ‘타티아나 역에 캐스팅되기를 꿈꿨느냐’는 질문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오네긴>을 하게 될 줄도 몰랐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아마도 발레단 내부에서는 저를 올라 역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리드 앤더슨Reid Anderson 슈투트가르트발레 예술감독이 무용수들의 클래스를 참관하고 캐스팅을 결정했는데, 예상과 달리 저를 타티아나로 발탁한 거죠. 당시 솔리스트였던 터라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하고 싶었던 역할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원들은 <오네긴>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블라인드로 캐스팅하기 위해 무용수들에게 비밀로 하는 조건이었다더라고요. <오네긴>은 드라마발레 중에서도 묵직하고 깊이가 상당한 작품이잖아요. 초연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파트너와 호흡도 맞춰야 하고, 혼자서 해내야 하는 테크닉도 상당했고, 신경은 쓰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어딘가 좀 달혀 있었고, 긴장과 부담도 상당했지요. 초연 이후에 여러 차례 재공연하면서 테크닉은 물론 호흡도 여유가 생겼어요. 연기와 표현 면에서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됐고요. 테크닉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재공연 때마다 원작 소설을 다시 읽고, 캐릭터를 연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오페라를 찾아보면서 좀 더 섬세한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해요.”

순진무구한 타티아나가 사랑에 눈을 뜨고,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되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복잡다단한 인생에 휘말리는 것처럼, 강미선의 타티아나도 점점 더 원숙해졌다. 테크니션이라 생각했던 그의 춤과 표현이 조금씩 조금씩 관객의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용수의 입장에서 그간 춤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케네스 맥밀런Kenneth MacMillan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그전까지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배역을 물어보면 언제나 ‘줄리엣’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작품을 제가 할 수 있게 되다니 굉장한 행운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2023년 상반기 <코리아이모션>, <지젤>, <심청>, <백조의 호수>를 차례로 공연한



유니버설발레단은 하반기 <더 발레리나> 지방 공연을 시작으로 갈라 공연과 정기 공연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을 앞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10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는 조금 특별한 공연이다.

“야외무대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래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 간이 무대를 세워 갈라 공연을 올렸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유니버설아트센터 앞에서 공연한 경험이 있죠. 확실히 야외무대는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운치가 있다는

거예요. <백조의 호수>나 <지젤> 같은 작품은 어둡한 밤에, 한강 앞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출퇴근길에 노들섬을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걸 보면서 ‘저기서 어떻게 공연하지’ 싶다가도, 저기서 공연을 올린다면 많은 사람이 발레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있어요.”

관객에게 한걸음 가까이

2012년 12월 28일, 매년 연말을 장식해온

<호두까기 인형> 무대. 캐스팅은 강미선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작품을 마친 무용수들이 커튼콜을 하던 때, 왕자가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클라라에게 청혼했다. 1천 명 가까운 관객은 그의 용기에 환호를 보냈고, 이듬해 두 사람은 결혼했다. 이제 이들에게는 막 두 돌을 앞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강미선에게 ‘워킹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남편과 저는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제가 입단하고 2년 뒤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승급 시기가 비슷했죠. 솔리스트가

되면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출 기회가 꽤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동료였죠. 그러다 수석무용수가 되고 남편과 함께 <호두까기 인형> 데뷔 무대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힘이 돼줬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마음먹은 게 잘 안돼서인지 낙심하고 주눅 들어 있던 상태였는데, 옆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연습하고요. 함께 일하다보니 서로의 일상과 스케줄을 잘 알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은 육아를 함께 해나가고 있죠. 부딪치는 때요? 연습실에서 파트너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도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파트너이고, 서포트를 가장 잘해주는 파트너예요. (웃음)”

최근 들어 출산하고 복귀하는 무용수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여성 무용수에게 2세 계획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한때 임신은 곧 은퇴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강미선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아이를 가졌다. 오래 고민한 결과였다.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작품에 대한 욕심, 발레단의 일정 등 갈등되는 상황에서 춤이

우선한 탓에 미뤄둔 것뿐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외동으로 자라 성장 과정에서 부쩍 외로웠던 터라 2세의 형제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출산하고 복귀해서 적어도 1~2년은 춤을 더 추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뒤에도 계속 연습실에 나와서 꾸준히 클래스를 했죠. 다만 제가 나이가 있다보니 컨디션이 전 같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상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했죠. 그리고 복귀했는데, 다행히 몸이 아주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허리는 많이 굳긴 했지만, 오히려 아팠던 골반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고 돌아와서 보니 후배들에게 ‘얼른 아이 갖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원 없이 춤추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체력이 있을 때 출산도 육아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쯤 은퇴했겠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엄마가 춤추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래 무대에 서는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춤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제 40대에 접어든 강미선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육아도 잘하면서, 체력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좋은 공연을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게 단기 목표라면, 이번에 상을 받고는 장기 목표가 생겼어요. 발레를 좀 더 대중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빼놓지 않고 전부 하겠다고 한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발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저희 발레단에서도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열거나 ‘방방곡곡 문화공감’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등 발레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이 한때의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발레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노들섬에서 올리는 공연도 대중에게 발레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힘을 보태고 싶어요.”





경영기획팀 김지우

문화예술과 시민을 숫자로 잇는다면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전통예술, 그중에서도 특히 탈춤을 좋아한 김지우입니다. 대학 시절 탈춤이 좋아서 공연예술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석사 과정에 진학해 예술경영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예술 지원기관이 한창 생기던 때라 대학원 재학 중에 관련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에 이르렀네요. 처음 일을 시작하고 10여 년간은 왜 명절 휴일이 사흘이나 되는지 아쉬울 정도로 일이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죠. 예술가들의 작업을 가까이서 보고 듣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요. 내 일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에는 2014년 입사해 10년간 정책연구팀·서울연극센터·남산예술센터·삼일로창고극장·미래전략팀·제휴협력팀을 거쳐 지난해 여름부터 경영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 휴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웃음)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살림을 맡고 계신다고요. 저희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기관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 운영합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다보니 지방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고, 그 내역과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현재 저는 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는 크게 편성·관리·결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재단에서 운영·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연간 총예산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사용·관리하고, 이후 일년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일년 단위로 매년 반복됩니다. 예산 편성 작업은 보통 전년도 6~7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서울시·서울시의회와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요. 일 년간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듬해 2월까지 사용액과 잔액을 산출해 결과를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이 기준과 규칙에 맞게 적절히 이뤄졌는지 감사를 받아요. 2023년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일 년간 사용하는 예산은 1,560억 원에 달하고, 300여 명 직원이 51개 사업을 운영하며 예산을 집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 이면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네요. 재단의 사업이 예술 현장과 시민에게 도달하기까지 꽤 많은 행정 업무가 존재하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영 부서이고요. 예산 담당자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각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서울시 예산 담당자에게 재단의 예산 담당자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을 서울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성과와 숫자로 설명하는 과정이랄까요. 그리고 예산 담당자로서 제가 가장 잘해야 하는 '기능'으로 여기는 것은, 숫자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 6과 9는 왜 자꾸만 섞이는지, 744와 774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어려운 것인지... (웃음) 저는 지난해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참 많았어요. 또 제 업무의 주 파트너는 서울시 공무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셔서, 함께 일하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수많은 숫자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결이 있나요. 예산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자면 서울문화재단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꼭 맞는, 필요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최대한 준용하거나 참고할 기준을 찾고, 불가하다면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부서를 거쳐 오셨어요. 서울문화재단에 근무한 9년 중 연극 분야에 몸담은 시간이 5년 반 정도 돼요. 일을 잘하고 싶고 연극에 관해 잘 알고 싶어서 가능한 연극 공연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반년 동안 60편 정도 보고 나니 정말 연극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연극센터에서 남산예술센터로 옮긴 후에는 '제작PD'라는 이름을 달게 됐는데,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깊게 관여하며 창작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세계는 늘 신기하고, 함께하는 과정은 언제나 버라이어티하지요. 이후 삼일로창고극장 개관 작업에 함께하며 결국 모든 일의 자산으로 남는 것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수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품을 올리는 극장은 많으니, 적어도 삼일로창고극장은 사람에게 열린 극장이 되고자 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금요일 퇴근 후의 시간이에요. 업무와 관련해서라면 일이 또 다른 일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연결될 때 보람을 느껴요. 일에서 비롯하는 성과와 보람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으나, 지속되는 보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계속해서 의미 있게 남기를 바라다면 오히려 괴로울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이 계기가 돼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거나 경험이 연결돼 무언가 이뤄진다면 보람 있지 않을까요.



최근 관심을 두는 주제가 있나요. 예전부터 '사람'과 '인류'에 관심이 많았어요. 개인이나 집단, 사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 행동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정반함을 만들어가는지 세계는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예요. 인간은 정말 미스터리하고 흥미진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정당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나의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요즘 사회 전반에 각양각색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일상에 영감을 주는 것들을 소개해주세요. 영감이랄까, 안정감이랄까요. 여덟 살, 세 살인 조카와 놀 때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충만해져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느낀 소중함, 순결함, 고귀함 같은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하다가도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고는 그저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되죠. 아이의 성장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의 나이듦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세계L&B × 서울문화재단

미식과 예술의 감각적인 동행

술과 예술은 오래된 친구처럼 함께한다. 그림이 걸린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이는 일, 라운지룸에서 음악을 배경 삼아 위스키를 마시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맥주 한잔 하는 일은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존재하면서도, 우리의 하루 중 전혀 당연하지 않은 진정한 여가의 시간을 담당한다. 많은 예술가들도 술을 사랑했다. 베토벤은 하루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며 작곡했고, 고흐는 압생트를 즐기면서 그의 수많은 그림에 술을 등장시켰다. 웬만한 도시에 '헤밍웨이 바' 하나씩은 존재할 정도로 애주가인 헤밍웨이,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는 말을 남긴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예술가가 마시는 술은 창작의 영감을 주는 넥타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 2023 공예상품개발사업 선정작(식기 부문) 사이토유나 <호월, 굽 접시>

하나의 공예 상품이 탄생하기까지

공예는 현대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성품이 주지 못하는 섬세함과 독특함을 선사한다. 현대인의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미술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동시대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숍도 많아졌다. 그러나 막상 공예 작품이 대중에게 소비될 수 있는 상품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과 협력하는 작품 개발의 기회는 신당창작아카데미에 입주한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다.

올해 5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0명(팀) 작가에게 소정의 지원금과 더불어 상품 개발을 위한 각종 멘토링이 제공됐다. 상품 기획부터 제작 방식, 마케팅 전략, 가격 책정, 디스플레이와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 멘토링과 더불어 작가들은 두 달 동안 치열하게 작업에 매진했다. 크기와 두께, 소재, 유약 여부 등 아주 섬세한 차이로 작품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최종 결과물을 드디어 이번 달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송원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Dining and More_감각의 테이블>에서 테이블웨어 4개 분야(술잔·식기·데코레이션·패키지)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은 모두 30만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며, 전시 현장에서 살펴보고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잘 차린 한 끼 식사를 완성하는 공예의 힘

공예품은 실제로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더 빛난다. 이번 공예상품개발사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전시실을 나와 신당동 지역상권과 협력해 색다른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최근의 '힙당동'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와인 비스트로 디핀의 윤남노 셰프가 작가들의 테이블웨어를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플레이팅을 진행한다. 미각과 어우러지는 오감을 호사롭게 하는 공예, 잘 차린 한 끼 식사를 완성하는 공예의 힘을 10월, 디핀에서 열리는 <감각의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느껴보기를 바란다.

↑ 2023 공예상품개발사업 선정작(데코레이션 부문) 방효빈 <Juggle Ring>
 ← 2023 공예상품개발사업 선정작(술잔 부문) 윤경현 <Cone Glass>

술과 예술이 만나는 기분 좋은 ESG

'와인앤모어'를 운영하는 종합 주류 전문 기업 신세계L&B에서는 2019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와 함께 공예상품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같은 술이라도 어디에 담아, 어떤 장소에서, 무엇과 곁들여 먹는지에

따라 맛과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공예·디자인 작가들이 술잔·식기를 비롯한 테이블웨어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신세계L&B의 프로모션 와인과 함께 비치되거나 일부 기업 기념품 및 특별 기획상품으로 연계해 추가 양산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술이 가진 가치를 문화와 예술에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신세계L&B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과정과 실험의 주체로서, 금천예술공장 실험프로젝트

실험프로젝트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한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새로운 입주작가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각고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창작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실험을 장려하는 ‘실험프로젝트’가 완성됐다. 2021년 오픈프로젝트(‘Ongoing Process Even Now project’의 약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23년 과정과 결과가 열려 있는 open, 좀 더 실험적 의미를 담은 실험프로젝트 open project로 자리잡았다.

실험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단어가 지닌 본래 뜻을 생각하면 쉽다. 작가는 희망하는 주제와 목표를 바탕으로 다른 입주작가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진행 과정에서 처음 주제와 목표는 얼마든 변형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실험프로젝트는 완성된 결과가 아닌, 변화되는 과정 그 자체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작가는 서로 다른 장르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술 창작이 가진 다양성을 확인하게 된다. 팀별 프로젝트의 취지와 연구 방식은 다르지만,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적·주제적 예술 실험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일 년에 한번 ‘오픈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가 마련된다.

지난 2년간 실험프로젝트 전시는 금천예술공장 대형전시실인 PS333을 포함해 지하 워크숍룸, 야외마당 등 정형화되지 않은 전시실에서 프로젝트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했다. 때로는 익숙한 매체가 아닌 새로운 재료로 확장하거나, 각자 다른 작가가 되어 서로의 작업을 탐구하는 등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실험은 많은 호기심과

↑ 도깨비 투어(고등어·이우성·한상아·함혜경)
 K 2022년 실험프로젝트 《Unusual Gestures: 물질을 통한 매체 및 재료 연구》와 〈스쿠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14기 입주작가 12명이 4개의 프로젝트—드라마연구회(임영주), 아래로 흐르는 강과 세 개의 거울(김겨울·김인배·박현정), 나는 좋은 퇴비가 되겠다!(김방주·오묘초·이은솔·이주리, 객원 박현정), 도깨비 투어(고등어·이우성·한상아·함혜경)—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돼 좀 더 많은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해프닝 혹은 작품의 토대가 되는 ‘살아있는 현재’

올해 실험프로젝트는 입주작가 4개 팀(총 12명)과 유은순 큐레이터가 함께 준비했다. 《실험프로젝트: 살아있는 현재(Living Presence)》를 통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현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 드라마연구회(임영주)
 거 아래로 흐르는 강과 세 개의 거울(김겨울·김인배·박현정)
 → 나는 좋은 퇴비가 되겠다!(김방주·오묘초·이은솔·이주리, 객원 박현정)

“실험프로젝트 개별 모임의 취지는 서로 다르지만, 구성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작업해온 주제와 방식을 교차시키며 구체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 작가는 정기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주제를 심화시켜나갔다. 동시에 ‘실험’이라는 구실을 통해 이전에 해 보지 않은, 작가 혼자라면 하지 않았을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다.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 협업, 일탈, 실험은 향후 작업에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된다. 미래에 수행할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단지 해프닝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가운데 실험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며 ‘살아있는 현재’가 된다.”(유은순 큐레이터)

이번 전시는 과정과 실험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이들의 현재 관심을 알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아래로 흐르는 강과 세 개의 거울〉은

서로 다른 관점과 사고방식을 존중하면서 작업의 과정과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추출해 전시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공이나 어디서 들리는 지 모를 목소리로 전달된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들의 대화에 주목해보자. 〈도깨비투어〉는 한시적 공동체를 이루는 레지던시의 특성을 빌려 낯선 곳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목적을 정해두지 않고 같은 시간과 장소, 그 안에서 함께 쌓아나간 경험과 기억을 각자의 작업으로 풀어낸다.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펼쳐지고 발화하는 이야기와 장면은 우연히 겹쳐지며 새로운 의미를 선사한다. 〈나는 좋은 퇴비가 되겠다!〉는 예술적 실천과 표현 방식에 있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확장할 방법을 모색했다.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과거의 사건·관계를 돌아보거나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을 공유하고, 이를 작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협업의 조건을 탐색해보기도 했다.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은 서로를 매개하기 위한

유효유가 된다. 작업은 개별로 진행됐지만, 모임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드라마연구회〉는 그동안 통속적인 한국 TV 드라마를 리서치해온 작가의 관심에서 시작했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큐레이터·일반 참여자를 비롯한 창립회원 5명과 함께 ‘드라마연구회’를 결성하고 연구 성과를 전시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실험프로젝트: 살아있는 현재》는 실험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의 중간에 위치한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그들의 프로젝트는 어쩌면 오픈스튜디오와 전시가 끝나고도 지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작업을 완결되거나 정지된 상태로 감상하기보다 기존 작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영향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실험프로젝트: 살아있는 현재》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금천예술공장

사진 잇다

SINCE

2015년

ABOUT

사진을 매개로 일상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사진과 무엇의 만남이 주는 시너지에 주목,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관심을 두고 지속해 연구하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MAJOR WORK

교육 프로그램 <사진, 나와 잇다>, <맘포토랩>, <우리맘연대>, <포토노블>, <펼쳐zine사진>, <Youth Photo Lab>, <Popas Studio>, <빛, 나, 우리>

MEMBER

김세미, 이은미, 이한나의

IN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AS 프로젝트: 못다한 과제, 못다한 과업>을 은평구 내에서 11월까지 진행한다.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다시 돌보는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동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과 예술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꾀하는 <새엄마 프로젝트>도 11월까지 꾸준히 운영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10명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나다운Girl>의 결과 전시를 롯데몰 은평점 갤러리에서 연다.



창작집단 LAS

SINCE

2009년 9월

ABOUT

즐겁게 공연하기 위해 모인 젊은 예술가 집단. 동시대를 살아가며 벌어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무대화하며, 예술은 '놀이'에서 출발한다고 믿고 창작집단 LAS의 활동이 즐거운 놀이가 되기를 꿈꾼다.

MAJOR WORK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우리별>, <줄리엣과 줄리엣>, <산책하는 침략자>, <우투리: 가공할 만한>, <한성의 이발사>

MEMBER

이기쁨, 정하린, 한송희, 신명민, 권동호, 김희연, 임현국, 백소현, 이새롬, 윤찬호, 윤지예, 장세환, 이강우, 조용경, 이주희, 고영민, 고희옥, 이효, 김하리, 이다빈, 한수림, 문은미, 서민지

IN 2023

10월 7일 서촌에 위치한 카페 보로우커피에서 <라스낭독극장>을 연다.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배우들이 직접 읽어서 보여주는 입체낭독극 공연으로, 2018년 이래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2023 미술주간

미술주간은 전국에서 온 국민이 미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미술 프로모션’ 기간이다. 매해 가을에 개최되는 미술주간에는 일 년 중 가장 다양한 미술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데, 아트페어·비엔날레 등 국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미술관·갤러리에서도 하이라이트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또한 작가미술장터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문 해설사와 미술관을 탐방하는 미술여행도 놓쳐선 안 된다.

미술주간은 주최 기관에 따라 ‘미술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아트위크’(서울특별시), ‘프리즈위크’(프리즈Frieze)라는 이름으로 각자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체로 9월 1~2주 사이에 동시 개최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미술시장, 공공 미술관, 미술단체 등이 마련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쏟아지기에 주요 프로그램만 챙겨보기도 벅찬 기간이다. 알찬 미술주간을 즐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소개하니 9월 초, 미술로 꽂 찬 주간을 즐겨보자.

미술주간의 메인은 단연 아트페어다. 2022년 세계적 인지도와 마켓 파워를 가진 글로벌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서울은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아트신이자 해외 미술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다. 이러한 열기와 함께 올해도 프리즈-키아프KIAF의 아트페어와 더불어 필립스·소더비 등 옥션, 프라다·샤넬 같은 패션 하우스 등이 준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서울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럼 페어부터 시작해보자. 9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프리즈 서울은 30여 개국 120개

갤러리가 참가하는 국제 아트페어인 만큼 해외 유명 갤러리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피카소·조지 콘도·안젤름 키퍼 등 거장의 작품을 선보인다.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는 한국 갤러리들이 다수 참가해 동시대 한국 미술의 스펙트럼을 살필 수 있다. 공동 개최하는 두 아트페어는 코엑스 전관을 사용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이니 관람 동선과 주요 프로그램을 먼저 체크하는 명민함이 필요하다.

아트페어에서는 먼저 여러 섹션으로 구성된 부스전을 본 후, 기획 전시와 병행 프로그램을 챙겨봐야 한다. 프리즈에서는 작품성과 미술사적 의미를 갖춘 고미술품과 근대 명작을 다루는 ‘프리즈 마스터스’를, 키아프에서는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20인을 선보이는 ‘키아프 하이라이트’와 젊은 갤러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젊은 작가를 선보이는 ‘키아프 플러스’를 눈여겨보자. 미술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토크 세션도 중요하다. ‘아시아 아트페어 생태계’, ‘인공지능이 미술에 미치는 영향’ 같은

내용을 다루니 미술계의 담론도 챙기자. 미술주간에는 밤에도 바빠 움직여야 한다. 주요 갤러리가 밀집된 한남동(9월 5일, 리움미술관·갤러리바톤·리만머핀 등), 청담동(9월 6일, 아뜰리에 에르메스·송은·원앤제이·화이트큐브 등), 삼청동(9월 7일, 아트선재센터·갤러리 현대·국제갤러리·아라리오갤러리 등) 세 곳을 중심으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오픈하는 나이트 프로그램과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낮과 다른 밤의 미술관·갤러리의 이벤트와 매력을 즐겨보자. 아트페어에서 유명 작가의 고가 작품이 거래되고 있다면, 작가미술장터에서는 국내 신진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300만 원 이하의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다. 미술주간 중 서울·완주·제주 등에서 5개 작가미술장터가 개최되니 가까운 장터를 둘러 청년 작가도 만나고 내 취향을 찾아 나만의 작품도 골라보자. 만약 작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제 컬렉터로서 작가를 응원하며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후원자도 되어 보자.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올해 가장 공들인 전시를 선보인다. 해외 관계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이니만큼 미술관에서는 한국 작가들을 선보이는 전시를 준비했다.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연두와 실험미술의 선구자 김구림의 개인전, 리움미술관의 강서경과 김범의 개인전,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박미나 개인전 등은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한 밀도 있는 전시로, 동시대 작가를 공부하기에 최적이다. 현대미술을 한껏 즐겼다면 서울공예박물관의 현대 공예 전시《공예 다이얼로그》에서 분청·금박·채화를 감상하고, 바로 옆 열린송현 녹지광장의 조각 및 설치 전시《땅을 딛고》로 이동하면 실내외에서 미술을 즐기는 최적의 코스가 될 것이다.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에서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을 만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공예 특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사물의 지도》(10월 15일까지)는 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동시대 공예의 담론을 전한다. 비엔날레

바로 옆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피카소 도예》를 통해 비엔날레의 공예 스토리를 이어간다.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11월 2일까지)는 안양의 지형, 문화, 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공공예술 작품을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도시 곳곳에서 즐기도록 한다. 대구사진비엔날레(11월 5일까지) 《다시, 사진으로》는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해 ‘사진적인 사진’을 선보인다. 홀수 해에는 공예·사진·공공예술 등 매체 특화 비엔날레가 개최되니 관심사에 따라 비엔날레와 개최 도시를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다.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있다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하는 2023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9월 10일까지)에 관심을 가져보자. ‘윤석’을 주제로 다양한 아트애펙트Art&Tech 작품을 선보이는데, 미디어 파사드, 설치, 오디오 비주얼,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 아닌가?

미술주간에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으로 여행을 떠나자. 미술여행은 전국의 미술관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며 전시와 작가에 대한 설명을 더하는 미술주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2023 미술주간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총 22개의 코스가 마련됐다. 서울에서는 소격동·을지로·청담동 등 12개 코스 중 기호에 맞는 코스를 고를 수 있고, 외국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코스도 있다. 미술여행은 매해 인기 프로그램이니 누리집을 찾아 예약을 서두르자.

이렇듯 다채로운 이벤트와 전시가 동시에 쏟아지니 미리 코스를 짜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미술주간 누리집(koreaartweek2023.com), 그리고 미술관·갤러리 거점 지역인 한남동·삼청동에서 운영되는 아트인포센터에서 참여기관, 프로그램, 전시 등 정보를 제공하니 온·오프라인 정보센터를 아주지게 활용하자.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이 넘치니 권역을 나누어 근처의 전시와 이벤트를 모아 일정을 짜는 것이 좋겠다. 자, 이제 미술주간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출발 전 멎은 한껏 내뒀, 신발은 운동화로 챙기자. 편하고 ‘힙’하게 아트 월드로 뛰어들어보자!





세계 무대에 통했다, 에든버러페스티벌 현장 취재기

8월 영국 에든버러에선 지금 가장 주목받는 클래식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이 거의 한 달 내내 이어진다. 내한하면 순식간에 표가 동나버릴 이름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그런 와중에 에든버러의 관객들이 K-팝이 아닌 한국 공연을 보러 올까? 사실 그다지 걱정은 안 했다. 올해 4월 에든버러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하고 니콜라 베네데티Nicola Benedetti 총감독과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행사를 76회째 치르는데, 자신 있으니 이렇게 밀어붙이겠지.’

에든버러 출장에서 첫 취재는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이었다. 이 공연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렸는데 그중 이틀차에 보러 갔다.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장인 페스티벌극장Festival Theatre에 들어섰는데, 빈자리가 별로 없었다. 1층 객석 주변을 보니 백발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백인 관객이 많았고 2층과 3층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이날 1,200석 중 1,000석가량 찼다고 들었다.

그제야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이 많은 사람이 ‘한국’과 ‘창극’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앞자리 남성 관객에게 물어봤다. 그는 “오늘 공연에 관해 아는 건 방금 여기서 읽은 게 전부”라며 프로그램 책자를 흔들었다. 답을 못 찾고 궁금증이 더 커졌다. 그는 매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오는데, 올해는 한국의 창극이라는 새로운 공연이 있어서 정가 약 8만 원인 티켓을 사는 시도를 해 봤다고 설명했다.

관객의 정체를 알고 나자 이제 반응이 신경쓰였다. 첫 공연 때 눈물을 보인 이들이 있었다지만, 자막을 보고 낯선 발성의 소리를 들으며 극에 집중하는 것이 잘 될지 미심쩍었다.

← 8월 11일 어셔홀 무대에 오른 KBS교향악단 ©Andrew Perry/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그런데 공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마지막엔 대부분 기립했다. 아까 그 관객에게 공연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는 목이 멘다며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감동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열정적이었고 헬레네(김준수 분)의 소리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스타 김준수를 꼭 짚는 대목에서 여러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된 안목이 있음을 새삼 느꼈다.)

다음 날은 KBS교향악단과 10대 첼로 연주자 한재민의 협연이었다. 창극에는 ‘신기함’이란 치트키가 있다지만, 클래식 오케스트라 연주는 진검승부다. 이날 2,200석 규모 어셔홀Usher Hall의 3개 층 가운데 1·2층의 주요석은 다 찼다. 올해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사이먼 래틀 지휘 런던 심포니, 이반 피세르 지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스 메켈레 지휘 오슬로 필하모닉-피아니스트 유자 왕 협연도 있는데 (날짜는 다르지만) 이들은 왜 여기 왔을까.

1부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협연이 끝나자, 옆에 앉은 두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오케스트라와 연주자가 아주 잘하는데, 이들에 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무대 위 연주자와 단원들과 같은 까만 머리카락이라도 더 알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친구 사이인 그들은 부부 동반으로 왔으며, 아무런 정보 없이 낯선 교향악단이란 점 때문에 (정가 약 9만 원인) 티켓을 샀다고 했다. 전날 들은 얘기와 똑같았다. 한재민이 2006년생이라고 알려주자 깜짝 놀라고선,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극찬했다.

이들은 1층을 내려다보며 대부분 관객이 자기들처럼 에든버러 지역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고 수준 공연을 꾸준히 들어온 이들이니 어지간한 소리에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지만, 2부에 KBS교향악단이 혼신의 힘을 쏟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연주가 끝나자 “브라보”가 나왔다. 옆 관객들도 “낭만적인 해석”이었다고 평하며 즐거워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음악 담당 대표Head of Music 앤드루 무어Andrew Moore도 KBS교향악단과 한재민을 선택한 것에 관해 “관객들은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해석, 콩쿠르에서 수상한 신예 음악가의 연주를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두 공연은 올해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공연을 5편



↑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Jess Shurte/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소개하는 ‘포커스 온 코리아Focus on Korea’의 일부다. 현악4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도 초청받았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주영한국문화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3 코리아 시즌’의 주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이번 페스티벌이 한국 공연을 초청할 만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한국 측 후원이 더해지면서 10년 만이자, 역대 최대 규모 한국 특집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다. 올해 페스티벌엔 한국 외에도 몇몇 유럽 국가가 스폰서 명단에 포함됐다.

영국에선 이 밖에도 바비컨·더 플레이스와 같은 주요 대형 문화예술기관들이 공연 기획 단계서부터 한국과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 대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후원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공연 표가 팔릴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연을 정하기 직전이나 이미 정한 후에 후원을 타진하는 경우도 있다. 런던 공연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후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 무대에 통하는 한국 예술가가 늘어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다. 그렇다면 후원의 기대 효과는 한국 공연 무대가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한국 공연계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겠다.

연출
신유청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티켓
전석 5만 원

예매
대학로극장 쿼드
홈페이지
www.quad.or.kr

드디어,
원작 연극
한국 초연!



9.22

— 30

더 웨일

BY
SAMUEL D. HUNTER

COLLAGE

걷다가 마주친 춤
어떤 싸움은 의미가 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더운 날에도 데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마음 - 더위잡다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푸른 점화 '우주'와 '창백한 푸른 점', 김현기
서울,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하루 축제로 거듭난 남이장군사당제

illust @slowrecipe

어떤 싸움은 의미가 있다

정육희 무용평론가

일본 머스크Elon Musk와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주짓수 대결이 성사될까요? 각각 테슬라와 메타의 CEO인 이들은 2016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최근 머스크가 소유한 트위터Twitter(현 엑스X)에 대항하여 메타가 스레드Thread를 선보이면서 싸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저커버그를 저격했고 주짓수 유단자인 저커버그가 맞받아치면서 주짓수 대결이 급속히 논의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은 하지 않는다면 언젠게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응수한 머스크는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을 대결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옥타곤은 철창으로 둘러싸인 팔각형 링의 종합격투기 경기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철창 속에서 몸싸움을 벌인다고 예고하니 초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거물 간의 불화야 종종 있습니다만, 말싸움을 몸싸움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원천기술, 추가, 재무제표 등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경쟁을 벌이는 이들이 가장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철창 대결을 한다니요.

몸싸움은 생태계의 주요 원리입니다.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경쟁해왔고,

때론 자기 존재를 증명하거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몸싸움이 좀 더 양식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게임이나 스포츠 등으로 발전했지요. 몸싸움에 의도적인 장애물과 규칙을 부여한 것이 게임이라면, 여기에 제도화된 운영과 관람객의 존재가 더해져 스포츠가 됩니다.

그런데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은 본능적인 몸싸움보다는 서양의 오랜 관습인 결투duel를 연상케 합니다.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결투는 서양의 귀족 남성들이 논쟁이나 명예 훼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식화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칼이나 총을 사용했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적은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로 명예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이에 응수할 정도로 용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투는 매우 양식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전자가 피도전자 앞에 장갑을 던지는 등 도발의 사인을 확실히 보내면 친구나 지인을 포함한 제삼자들이 결투의 시간과 장소, 방식을 조율해 정식으로 도전합니다. 결투인 사이에 나이나 위계 차이가 너무 크거나 도발의 사인이 사소한

일이라 판단되면 거절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도전을 거절하면 겁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지요. 중재 노력이 허사가 되면 결투가 치러집니다. 주로 으스스한 새벽에 외딴곳을 '명예의 장field of honor'으로 삼아 의사 및 제삼자가 대동한 가운데 대결을 치릅니다.

결투의 양상을 잘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 푸시킨의 소설 『오네긴』을 들 수 있습니다. 오만한 귀족 오네긴이 절친한 친구 렌스키의 별장에 놀러 왔다가 우발적으로 렌스키의 약혼녀인 올가와 연거푸 춤을 춥니다. 약혼녀를 우롱당한 렌스키가 결투를 신청해 명예를 지키고자 했고, 오네긴 역시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존 크랭크가 안무한 발레 <오네긴>을 보면 무도회장서 올가와 오네긴의 춤을 보던 렌스키가 장갑을 벗어들어 오네긴의 두 뺨을 찰싹찰싹 때린 후 힘껏 바닥에 던집니다. 명백한 도전의 사인이죠. 다음 장면에서 어슴푸레한 새벽에 들판에서 만난 둘은 뒤돌아 몇 발짝씩 걸어간 후에 동시에 돌아 총을 한 발씩 쏩니다. 안타깝게도 오네긴의 총알이 명중하며 렌스키가 사망하고 말지요.

결투가 얼마나 양식화된 싸움인지는 또 다른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티볼트와 머큐쇼·로미오 간의 칼싸움과 비교해보면 극명합니다. 베로나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떠들썩하게 놀던 와중에 재간동이 머큐쇼가 상대 진영의 우두머리인 티볼트를 놀리자 우발적인 칼싸움으로 번졌고, 절친 머큐쇼가 죽자 로미오도 반격하여 티볼트를 죽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른들이 와서 말릴 새도 없었지요. 이에 비하면 결투는 품위와 절차를 중시하여 고도로 양식화된 해결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칼이나 총 없이 맨몸으로 싸웁니다. 그것도 상대방과 몸을 밀착해야 하는 주짓수로요. 일본 유도에서

영향받은 브라질 무술인 주짓수는 관절기, 누르기, 조르기 등 기술로 상대의 몸을 제압합니다. 특히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기에 몸집이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몸집이 작지만 유단자인 저커버그와 덩치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머스크 중에 누가 유리할까요? 도박사들은 저커버그의 승률이 높다고 합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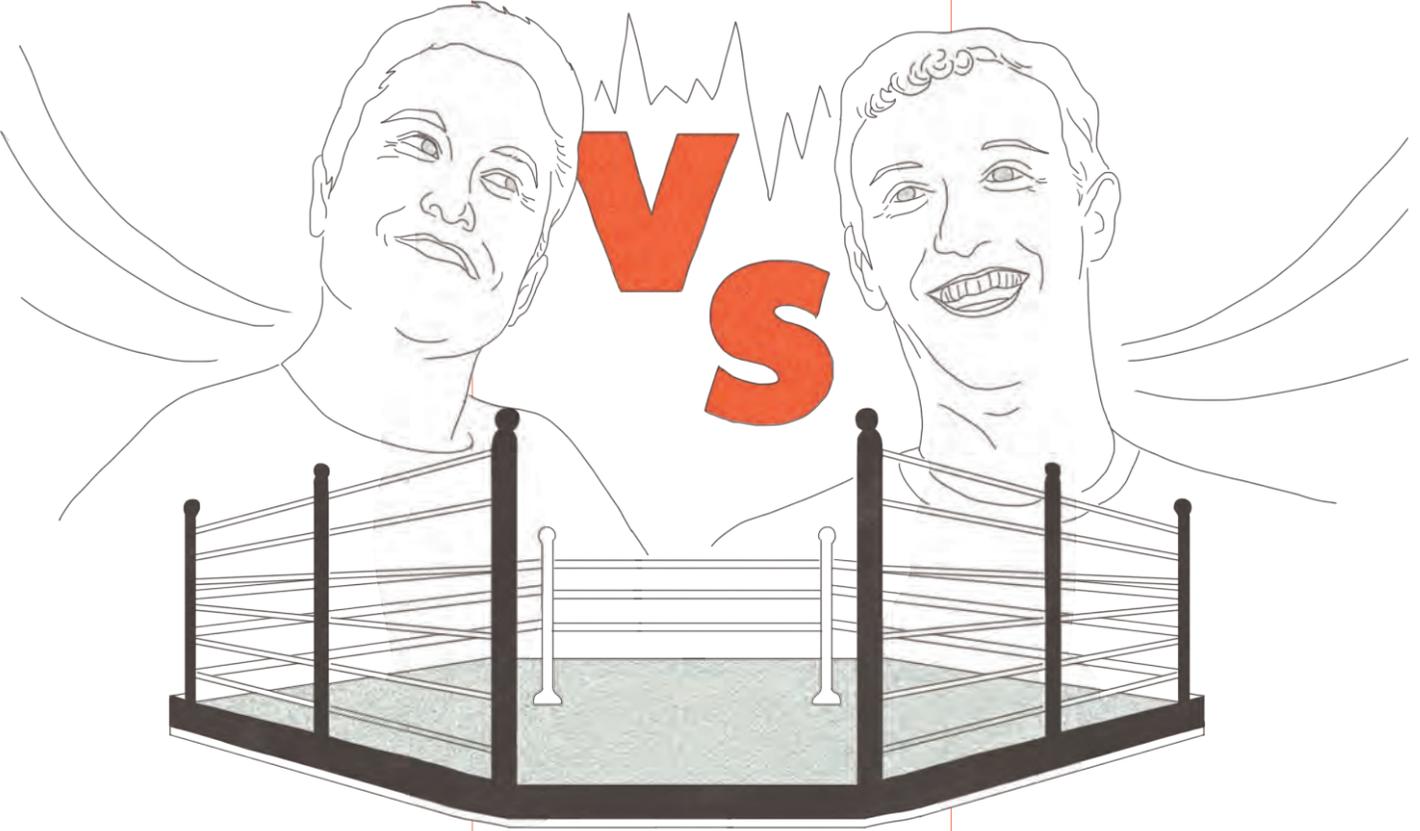
그들의 대결을 상상해봅니다. 서로 몸을 마주댄 채 상대방의 키와 몸무게와 근력과 기술을 받아들이다 보면 세계적인 부호이자 첨단기술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몸일 뿐임을, 땀 흘리고 쉽게 피로해지는 몸일 뿐임을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몸싸움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인 데다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해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여기에 맞춰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이루어지니까요.

무엇보다도 대결은 꼭 상대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공존할 수 있음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과 절차를 갖춘 대결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갈등을 표출하고 인지하며 조율하게 해줍니다. 스트리트댄스의 한 장르인 크럼핑은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던 지역에서 신체 접촉을 피한 채 상대방과 일대일로 대결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다스리던 행위에서 탄생했지요.

타인과 늘 조화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몸싸움을 빙자한 말싸움에 그칠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도 만약 매치가 성사된다면 시골벽적인 스펙터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기의 빅매치를 떠벌리는 대신 동네 체육관에서 한판 대결을 수행하면 어떨까요? 그곳에선 승패에 몰입하기보다 성찰의 기회로 삼고,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몸보다 느끼고 알아채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겁게 만나고 헤어지는 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몸싸움은 매주 보고 싶습니다.



더운 날에도 데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마음 — 더위잡다

오은 시인



어릴 적 '덥다'를 '덥다'로 잘못 쓴 적이 있었다. 아마도 "오늘 참 덥다"나 "방 안이 왜 이리 덥지?" 같은 문장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받침 있는 글자를 써야 할 때면 느낌에 의존하곤 했다. 모르면 몰라도 '덥다'와 '덥다'를 혼용했을 것이다.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렸을 테지만, 아이였으니까 틀렸을 때조차 크게 혼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억이 떠오른 것은 여름날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나를 보고 친구가 한 말 때문이다. "가득이나 더운데 이불을 덮으면 더 덥지 않아?" 나는 이불을 덮어야 안심이 된다고 말하며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지만, 덮어서 더 더운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은 여름날이었고 폭염주의보, 열대야, 탈수 등의 말을 뉴스에서 들은 날이었다. 습관적으로 이불을 덮는데 마치 더위를 덮는 것 같았다. 더위에도 무게가 있구나, 그것이 습기와 결합하면 무시무시할 만큼 무거워지는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그날 나는 '덥다'를 부러 '덥다'로 썼다. 내 온몸을 막고 누르고 닫고 휩싸는 어떤 것, 웬지 '덥다'라는 말로는 그 느낌을 완벽히 표현해내기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는 허물을 덮듯이 '덥다'를 '덥다'로 덮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사지^{사지}가 땀으로 흥건했다. 더위가 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나는 쉬지 않고 물을 들이켰다. 열을 열로써 다스리는 이열치열처럼, 발생한 물은 또 다른 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았다.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처럼, 더위 앞에서는 사소한 일을 수행하는 것조차 힘겹다. 언젠가부터 길어지기 시작한 여름은, 마치 혜성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가을의 첫머리까지 잠식하고 있다. 입추가 지났으나 가을이 시작되기는커녕 여름이 본격적으로 활개 치는 듯하다. "아, 덥다"라고 소리 내어 말한 게 언제인지 더듬어보니 5월 중순이었다. 한봄에 이미 첫여름의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첫여름부터 일찍 오는 더위를 일컬어 '일더위'라고 하는데, 일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빠를수록 여름이 길다. 일더위가 독할수록 그해 여름은 혹독하다. 머리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어도 몸은 생존을 위해 기민하게 반응한다. 땀 흘리는 만큼 시시로 물을 찾고, 길을 걷다가도 그날만 보이면 반사적으로 기어뜰게 된다.

일더위의 반대말은 늦더위일 것이다. 여름이 다가도록 가지지 않는 더위 말이다. 일더위가 빨라진 만큼 늦더위는 없거나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으려만, 가을의 한복판에서도 더위는 꺾이기를 거부한다. 봄의 꼬트머리와 가을의 첫머리에는 어김없이 더위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것도 바로 더위다.

더위 먹다, 찜통더위, 불볕더위,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등 더위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은 더위를 이기거나 물리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덥다, 후덥다, 무덥다, 후텁지근하다 등은 더위의 정도를 드러내는 형용사인데, 더위가 갖는 변화무쌍함을 생각해보면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다. 기후 위기의 징후를 더위만큼 속 시원히(?)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듯하다.

더위에 몸 돌바, 마음 돌바 모르던 중에 '더위잡다'라는 말을 알게 된 건 실로 행운이었다. 말 그대로 더위를 잡는다는 뜻이면 대리만족을 느꼈겠지만, 이 단어는 오히려 "움키다"와 가까운 단어다. '더위잡다'의 첫 번째 뜻은 "높은 곳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잡다"이다. 절벽에

오르기 위해 바위를,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나무 덩굴을 잡는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지는 단어다. 왜 그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를 시작 혹은 끝으로 이끄는 것일까. 마치 이르게 시작된 더위라도 늦을지언정 언젠가는 끝을 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더위를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더위 꼭대기로 나아가는 용사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된더위에 이미 지쳐버린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더위잡다’의 두 번째 뜻은 “의지가 될 수 있는 든든하고 굳은 지반을 잡다”이다. 먹고살기 위해 무작정 상경한 사람,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민자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 무수한 실패로 실망낙담失望落魄한 사람에게 더없이 필요한 단어이기도 하다. 더위를 잡아야 비로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복돋우면서, 동시에 너무 더우면 단단한

의지도 일순 흐무러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위잡다’의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을 읽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안간힘’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매년 갱신을 거듭하는 더위를 통과하는 일은 더위잡겠다는 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래전의 일이다. 한여름 밤, 엄마와 나 단둘이 있던 집에 누군가가 벨을 눌렀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까무잡잡했다. 복수腹水가 차서 배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똥기를 단단히 결심한 듯 엄마는 그를 집에 들였다.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몹시 형형炯炯해서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압도’라는 말을 몸의 반응으로 먼저 배운 셈이다. 엄마는 바지런히 상을 차렸고 그는 다소 힘겹게 밥을 먹었다. 찹찹, 후루룩, 우걱우걱 등의 부사가 육성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기도 한 날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엄마는 끝까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시한부 인생, 이 말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언젠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집 안에 들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만이 풍길 수 있는 강렬한 기운을 그의 눈빛에서 읽었다고 했다. “무섭지 않았어?” 내가 물었고 엄마는 “어쩌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서울지도 몰라”라고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름밤, 찌개를 데워 손님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데우면서 더위를 물리치는 마음, 더위잡겠다는 사람 앞에서 선선히 더위잡히는 마음, 더운 날에도 데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마음 덕분에 여름의 더위는 마침내 ‘가시는’ 게 아닐까.

푸른 점화 ‘우주’와 ‘창백한 푸른 점’ 김환기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칼 세이건Carl Sagan)

1990년 2월 지구에서 61억km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우주 속의 지구를 찍은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불린다. 이 사진에서 지구의 크기는 0.12화소에 불과하며, 작은 점으로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별은 은하수가 거느린 3천억 개 별의 하나인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행성일 뿐이다.

불멸의 과학책 『코스모스Cosmos』 저자 칼 세이건이 이 사진을 보고 감명받아 쓴 책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은 깊은 성찰을 일으킨다. 보이저 1호의 화상팀을 맡아 지구를 촬영한 칼 세이건은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며 “그저 지구는 광활한

경매에 내놓은 작품이다.

132억짜리 비싼 그림이라고만 여긴 〈우주〉를 세삼 다시 보게 된 건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다. 김환기의 40년 예술세계 전반을 살펴보는 대규모 회고전인 《한 점 하늘, 김환기》는 ‘비싼 작가’로만 포장된 김환기를 제대로 보여준다. 그간 도판으로만 확인되던 초기작과 미공개작, 드로잉과 일기 등을 최초로 선보여 김환기가 점화로 심취하기까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50세에 뉴욕으로 건너간 김환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1980년 출간)보다 먼저 ‘푸른 점화’에 도달했다. ‘창백한 푸른 점’처럼 보이지도 않는 지구 속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무수한 이방인이자 무명작가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날이면 날마다 점을 찍으며 생활을 이어갔다.

오만가지, 죽어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 흐르는 강, 내가 오르던 산, 풀포기, 꽃잎... 실로 오만가지를 생각하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점을 찍어간다. (김환기의 일기 중)

어둠 속에 홀로 외로이 빛나는 점처럼 그도 점점 점이 되어갔다. ‘점화’에는 1930년대부터 이어져온 그의 추상 여정이 함축되어 있고, 그 작은 점 하나하나에는 자연과 인간, 예술을 아우르는 보편적 세계에 대한 확장된 사유가 담겨 있다. 푸른 점으로 소용돌이치는 작품 〈우주〉는 그 어떤 그림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게 세상에 남아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있다.

뉴욕에서 하나의 점처럼 외롭게 작업하던 그는 1974년 7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별의 세계’로 떠났다. 화가의 직업병인 목디스크로 수술대에 올라 뇌출혈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쓴

일기(1974년 7월 12일)가 마지막이었다. 호암미술관 전시는 그가 작고 한 달 전에 죽음을 예감하듯 그린 검은 점화〈17-VI-74 #337〉1974로 마무리된다.

‘푸른 점화’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의식의 상징이다.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지만 아주 작게 빛나면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1913년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도(현 안좌도)에서 태어나 화가가 된 김환기는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미술세계를 정립해 우리의 추상미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렵던 시절 오로지 새로운 세계를 그린다는 일념으로 세계 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예술의 꽃을 피운 화가 김환기가 소중하고 ‘K-아트’의 위엄을 전하는 이유다.

김환기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이자 상징 같은 존재로, ‘고전’을 만들고자 했던 작가의 바람대로 그의 예술은 오늘날에도 공명한다. 120점이 전시된 호암미술관 전시는 김환기가 남긴 글과 일기를 함께 선보여 감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렇게 김환기를 이해하고 나서 전시 마지막 부분의 점화를 보면 감동이 몇 배로 커진다. 1970년 김환기의 점화를 처음으로 알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그림 앞에 서면 전율이인다. 우리를 무한한 우주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 그림이다.

‘먼지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건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했던가. 김환기의 작품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던 부인 김향안은 1992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개관했다. “내 작품은 내 나라에, 서울에, 보내고 싶어” 했던 남편 김환기의 마음을 받은 ‘찐사랑’의 결실로, 한낱 점 같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가 일궈놓은 업적에 경탄하게 하는 전시장이다.

하루 축제로 거듭난 남이장군사당제

김보나 칼럼니스트

17세에 무과에 합격하고, 26세에 병조판서 자리에 오른 자. 태종이 자애하는 외손자이자 이시애의 난과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워 세종의 총애를 받은 자. 바로 세종 23년1441에 태어난 남이 장군이다. 그가 남긴 시구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남야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에서 읽히는 그의 기개와 기세는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역모죄로 효시되는 지경에 이른다. 뼈대 굵은 가문도, 그간 쌓아 올린 무공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훗날 그를 기리며 전해지는 소설과 설화에서는 그의 출신이나 역사적 배경보다 뛰어난 무예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두드러져 있다.

‘그는 뱀의 원혼이 환생한 것이다.’
‘어린 시절 어느 종이 가져가는 작은 상자에 분을 바른 여자 귀신이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권람의 집으로 가게 됐다. 잠시 뒤 그 집의 여식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가 들어가 여식의 가슴을 타고 앉았던 귀신을 쫓자, 여식이 살아났다.’

약 200년이 지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업지로 번창한 한강 일대의 상인들은

부군당을 세우고 민속신앙을 통해 사람들의 구심점을 구축하고자 했고, 이때 1818년 복권된 남이장군사당이 세워졌다. 남이장군사당터는 여러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는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용문동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사당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1990년대 중건하면서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고즈넉한 사당은 아파트 사이의 화려한 사당으로 변모했지만, 사당의 핵심으로 꼽히는 당내 무신도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당 정면의 남이장군 무신도를 중심으로 두고 좌우로 발상 내외, 호구야씨, 삼불제석, 최영 장군 등 총 25점의 무신도가 봉안돼 있다. 사당의 무신도는 격이 높은 신을 상단에 두고 격이 낮은 신을 하단에 그리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보통 한 분을 모시는 별상신이 10명이나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곳을 통해 전염병을 막고 마을 주민의 안녕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려한 색감과 훌륭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무신도를 통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등에는 활을 메고 위엄 있게 앉아 월도를 빼든 남이 장군과 좌우 신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무신도는 그 숫자와 종류

그리고 엄정한 배열까지, 여러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남이장군사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내실 內實 있게 한다’라는 말에서 내실의 실제와 가치적 의미를 동시에 마주한 것과 같은 셈이다. 역사적 실제와 환상이 공존하고 대동적 바람과 기대가 깃든 남이장군사당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사당제를 올린다. 10월 초하루면 용문동 일대가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일간 열리는 사당제는 마을축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주 무녀가 사당 입구에 황토를 뿌리고 소나무를 끼운 금줄을 걸어 샷된 기운과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으면 비로소 사당제가 시작된다. ‘걸립-꽃 받기-유식제의-사당굿-대동잔치’ 순으로 이어지는 순서나 내용은 일반 서울굿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남이장군사당제만의 특별함이 곳곳에 담겨 있다.

걸립은 당제와 당굿에 필요한 제물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일간 용문동 일대에서 이뤄진다. 당주 무녀와 풍물패가 용문시장을 돌며 집안의 번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해 주는데, 100여 가구가 참여해 음식과 재물을 내놓는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당제 전날 제에 쓸 음식도 함께 준비하는데, 이 같은 마을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1983년 남이장군사당제가 용문동부군당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마을제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해가 지면 당주 무녀는 본전에 있던 연꽃을 가마에 태우고 길을 나선다. 사제무와 풍물패를 비롯한 100여 명이 도보로 부군당을 향해 이동하는데, 예를 갖추고 서로 꽃을 교환하고 되돌아와 받은 꽃을 사당에 올리면 ‘꽃 받기’가 마무리된다. 이는 사당제가 축제화되면서 생긴 과정으로, 신성에 대한 공간적 확장이자 연대의 강화를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유식제의는 보통 당제 하루 전날 유교식으로 차리는 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사당제 당일에 올리며, 구청장이 초헌관으로 참석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유식제의가 끝나면 장군 출진이 행해진다. 남이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는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유가돌기가 하나의 축제처럼 변화한 것이다. 도심 한복판의 행렬이 큰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상황 이후 사당제가 간소화되면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다시 재연 예정이라고 하니 오랜만에 볼거리가 넘치는 사당제의 전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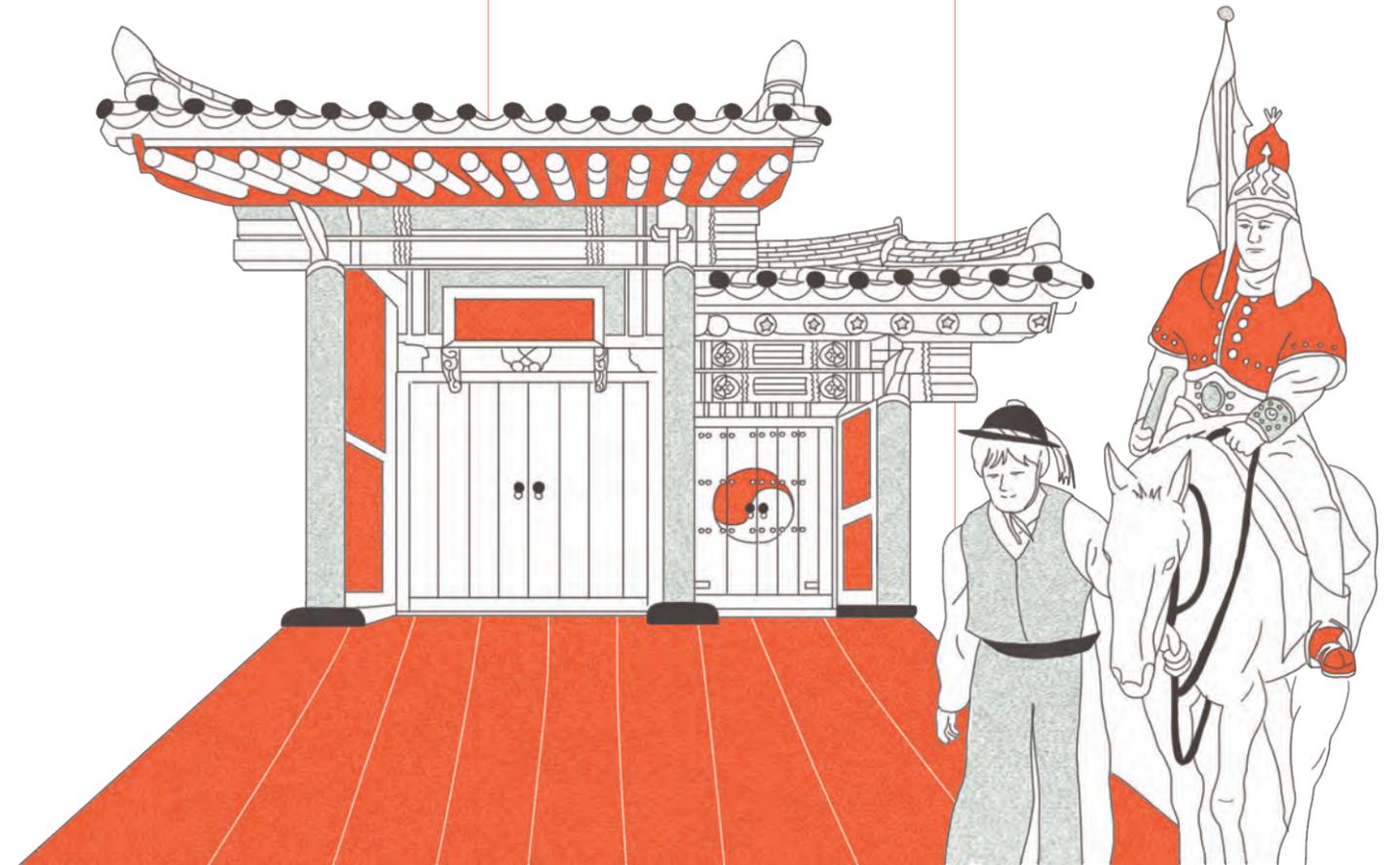
사당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당굿은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화 단계에 속하는 주당물림부터 굿판에 모시지 않은 하위 신을 살피는 뒷전거리까지 이어진다. 1997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남이장군사당제의 보유자로 지정된

이명옥과 그의 제자들이 굿거리를 이어가며, 여기에서도 특색있는 굿판이 벌어진다. 바라에 돈을 받고 대추를 주며 복을 나누는 불사거리나 신장기를 뽑아 기의 색에 따라 공수를 해주는 신장거리, 창부신을 모시는 창부거리 등은 대부분 서울굿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을 내 모든 성주신을 모아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황제풀이나 화살을 사방으로 쏘아 맥을 물리는 군웅거리는 남이장군사당제가 마을굿임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당주 무녀가 본굿에 부르지 못한 하위 신을 모시는 뒷전거리까지 끝이 나면 복어를 사당 밖으로 던지는데, 복어 머리가 사당 밖으로 향하면 굿이 잘 치러졌다고 여긴다. 이는 삼지창에 준비한 돼지를 꿰어 세우는 것으로 굿을 받는 신이 만족했는지를 점치는 별상사실세우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때 창이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으면 만족한 것으로 여겼다. 굿판이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면 곤란하다. 아직 사례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당굿이 행해진 다음 날, 당주 무녀는 신성한 사당을 더럽히고 시끄럽게 한 것을 사죄하는 의미로 사례제를 올린다. 이때 치성을 드리고 개별 소리를 호주 성명을 부르며 복을 기원하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사례제 후에 4차선 도로를 막고 1천여 명의 마을 주민이 어울리는 잔치를 벌였다.

남이장군사당제가 지닌 진정한 가치는 태초에 사당이 세워졌을 때의 목표와 연결된다. 함께하는 이들의 화합과 안녕이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마마신을 내부에 봉안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를 꾀했다. 지난 3년간 사당제가 간소화된 채 맥을 이어온 터라 화려한 대동의 의미가 무색해지진 않았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남이장군사당제가 지닌 두 가지 가치와 정체성은 언제나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가 담긴 ESG 특집과 로봇 지휘자에 관한 기사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기후 위기 속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동시대 예술가들의 활발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씨님

POSTSCRIPT

계절의 경계에서 책을 펴낼 때는 늘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 유독 무덤고 습했던 8월, '축제의 계절 가을'에 걸맞는 시원하고 활기찬 기사를 쓰기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며 흘린 땀이 한 탕크다. 입추도 처서도 지났는데 가을이 오긴 오는 거냐며 한참 툴툴거리다 보니 어느새 여름도 이번 책도 끝이 보인다. 축제의 본질은 사람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호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마감을 하며 비로소 축제에 대한 기대가 차오른다. 올가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될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했다면, Focus에 소개된 세 축제에 함께 해주시길!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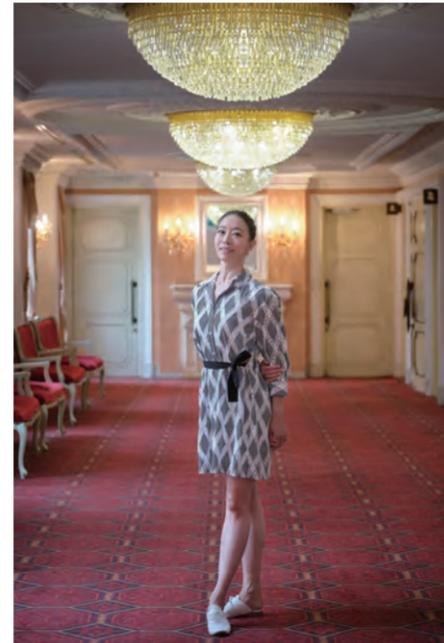


AT THE END OF SUMMER

이번 여름 유난히 습하고 찜통 같던 탓에 더위에 지친 날의 연속이었다. 그래서인지 곧 다가올 9월이 더 기다려진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들이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문화+서울]에서 미리 만나보고 꼭 축제 현장에도 가보시길 바란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REMINISCENCE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아주 오랜만에 세종대극장에서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인사를 걸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공연까지 못 보면 어쩌나 마음 졸인 하루였지요. 저녁도 거르고 간신히 공연장에도착해, 성장기 소녀 같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본 공연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눈부셨어요. 무용수 감미선과 이야기 나누면서 화려한 무대 뒤에 이토록 차분하고 성실하며, 쉽게 동요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테크닉도, 연기도 아닌 '안정적으로' 춤추는 것이 내 춤의 강점이라고 꿈는 그가 강변을 배경 삼아 가을바람을 맞으며 오데트/오딜로 분하는 10월이 또 한번 기다려집니다. 김태희 디자이너끼 에디터



EPILOGUE

잘 모르는 한국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임에도 티켓을 예매해서 공연을 보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관객이 인상적이었다. 9월 1일 열리는 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은 한국에서도 일찌감치 매진됐다. 타국에서의 반응을 보니 안 그래도 기대했던 공연이 더 기대가 된다. 전민정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께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

19세부터 22세까지, 20만원 공연 프리패스 놓치지마!

2차모집 ~9월 14일



서울시가 2001~2004년생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8월 25일(금)부터 9월 14일(목)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1533-3427



서울청년문화패스

